

사이 예술학교 결과





사이:예술학교 7년교과자료집

2025년

1

시작하며

- * 시작하며 8p
- * 사이:예술학교를 10p
소개합니다
- * 2025년, 우리가 12p
함께한 시간의 개요



2

함께한 사람들 예술가, 매개사가 되다

- 01. 강나루 16p
- 02. 강지수 24p
- 03. 김정운 30p
- 04. 소리엘 38p
- 05. 어코드 50p
- 06. 장수진 70p
- 07. 조윤성 78p
- 08. 최민경 88p
- 09. 최은정 96p
- 10. 한용희 104p

3

함께한 사람들 기관과 현장이 들려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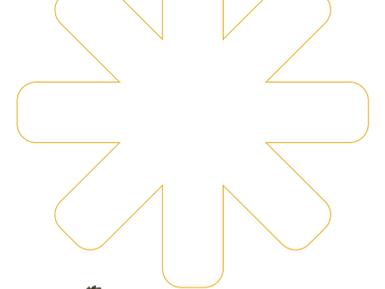
- 01. 마음사랑병원 120p
- 02. 예수재활원 124p
- 03. 전북푸른학교 126p
- 04. 한사랑 128p

4

함께한 사람들 멘토의 목소리

- 01. 문해주 134p
- 02. 최선영 138p

※ 본 자료집에 수록된 사진은 참여기관의 요청에 따라
참여자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얼굴을 블러 처리하였습니다.



장애예술교육은 단순히 예술을 가르치는 일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삶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사이:예술학교」는 장애와 예술, 지역과 사람 사이의 지점을 함께 이해하고 만들어 가는 배움의 기록입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예술가들과 지역의 장애인 기관이 만나,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완성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예술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차분히 확장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예술가들이 장애인을 일방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닌, 예술 활동의 주체이자 동료로 바라보며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해 온 점은 완주형 장애예술교육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장애예술교육이 특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문화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자료집이 지난 과정을 정리하는 기록을 넘어, 앞으로 완주에서 장애예술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확장되어 나가는 데 작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에 참여해 주신 예술가와 기관 관계자, 멘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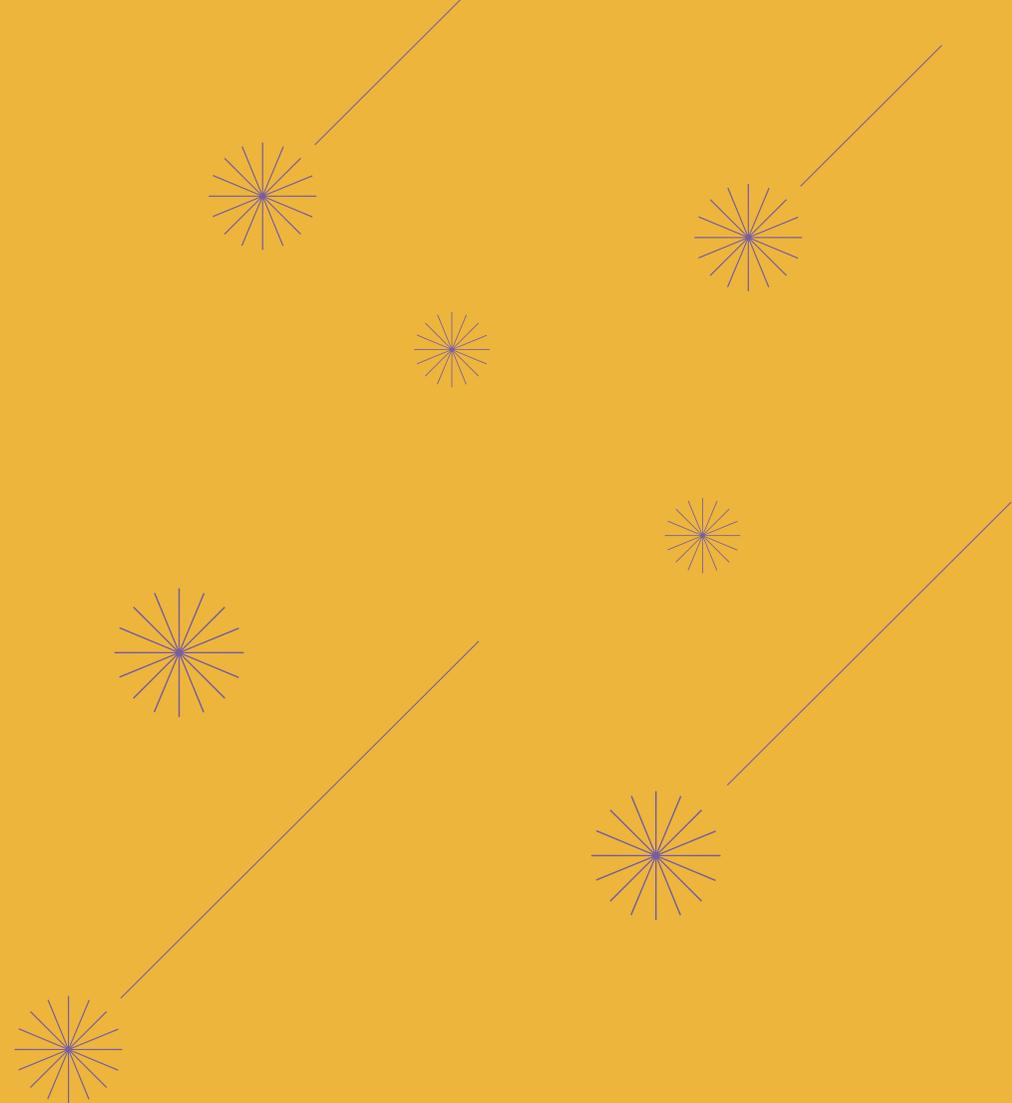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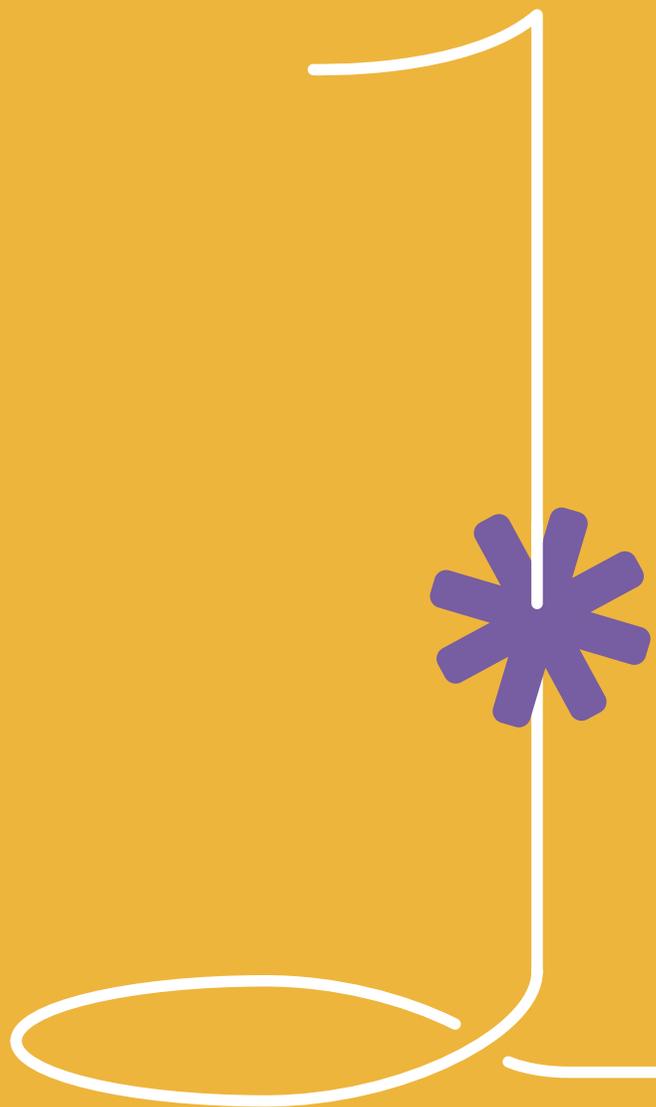
2025년 12월
(재)완주문화재단 이사장 **유 희 태**

2025 「사이:예술학교」는 장애예술교육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장애예술교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예술교육지원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2021년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완주 지역 내 장애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사이:예술학교」는 장애 예술의 접근성을 넓히고, 누구나 예술을 통해 자기표현과 소통의 경험을 확장하며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예술에 장애는 없으며, 예술을 통해 열릴 수 있는 세계는 무궁하다는 인식 아래, 말·색·몸짓·침묵 등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지향한다.

본 사업은 장애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예술인과 완주군 내 장애인 관련 기관·시설·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장애예술교육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예술가를 단순한 강의자가 아닌, 장애인의 예술적 자기표현과 소통을 곁에서 지원하는 '예술교육 매개자'이자 동반자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사이:예술학교」는 연구모임,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결과공유회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통해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수동적 향유자가 아닌 창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장애예술교육 생태계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სსიპ
სსიპ

시작하며

✧ 이 기록을 남기게 된 이유

이 자료집은 하나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한 기록이기보다, 우리가 함께 지나온 시간과 질문을 잊지 않기 위해 남기는 기록이다. <사이:예술학교>는 처음부터 완성된 답을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 아니었다. 오히려 장애예술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현장에서 계속해서 마주해 온 작은 물음표들로부터 출발했다.

✧ 장애예술교육, 왜 '사이'에서 시작했는가

장애 예술교육은 왜 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불리는가. 왜 예술교육 현장에서 장애는 배려의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과도한 기대 속에 놓이곤 하는가. 그리고 예술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로 존재해야 하는가. <사이:예술학교>는 이러한 질문을 단번에 해결하기보다, 질문을 함께 붙잡고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이 사업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장애예술교육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수업, 한 장의 작품, 한 번의 발표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의 변화, 태도의 변화, 시선의 이동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간다. 이 자료집은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가능한 한 놓치지 않고 담아내고자 했다.

<사이:예술학교>는 장애 예술인을 위한 교육이자, 동시에 예술가를 위한 배움의 자리였다. 장애 예술교육 현장은 단순히 기술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속도와 언어, 몸과 감각이 만나는 장소다. 그 안에서 예술가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함께 배우는 존재가 되며, 기존의 예술교육 방식과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장애와 예술', '지역과 사람', '교육과 창작' 사이에 여전히 많은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이:예술학교>라는 이름은 그 간극을 단번에 메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사이에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겠다는 선택에 가깝다. 빠르게 성과를 증명하기보다, 천천히 관계를 만들고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 장애예술교육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학교에서의 배움은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워크숍과 멘토링, 현장 실습을 거치며 예술가는 기관을 이해하고, 기관은 예술의 언어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장애 유형과 개인의 특성, 기관의 환경과 제약, 그리고 예술가 각자의 작업 방식이 하나의 정답 없이 끊임없이 조율되었다. 그 과정은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사이:예술학교>가 지향하는 장애예술교육의 방향이 드러났다. 누군가를 돕는 교육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 설명하는 예술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술을 통해 연결되는 경험을 만드는 것. 이 기록은 그 연결의 흔적을 따라가며 정리한 결과다. 완벽한 사례집도,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보고서도 아니다. 대신 현장에서 실제로 고민하고, 시도하고, 수정해 온 예술가와 기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다. 성공의 순간뿐 아니라 망설임과 질문 역시 장애예술교육의 중요한 일 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사이:예술학교>는 한 해의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기록이 의미를 가지는 지점은 그 이후에 있다. 이 자료집이 또 다른 현장에서 누군가의 질문을 시작하게 하고, 장애예술교육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작은 참고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남긴 이 기록이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떻게 함께하려 했는가'를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장애예술교육이 특별한 시도가 아닌,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상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이:예술학교>의 첫 장을 연다.



사이:예술학교를 소개합니다

☀ 장애와 예술, 지역과 사람 사이에서

장애와 예술, 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예술의 배움터. <사이:예술학교>는 이 문장에서 출발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이 사업이 놓이고자 했던 자리이자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장애예술교육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남아 있다. 장애 예술인은 왜 '참여자'로만 호명되는가. 예술가는 왜 늘 '가르치는 사람'으로만 서 있는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예술교육은 왜 단발적인 사업으로 머무르기 쉬운가.

☀ <사이:예술학교>는 이러한 질문을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라는 물음에서 다시 바라보고자 했다. 이 학교가 지향한 장애예술교육은 특정 대상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예술을 매개로 만나 각자의 언어와 감각을 존중받는 과정이었다. 예술에는 본래 장애가 없다. 그러나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사이:예술학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접근성은 시설이나 제도의 문제를 넘어, 태도와 관계, 그리고 교육 방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말보다 색으로 더 잘 표현하는 이들이 있고, 손보다 몸짓으로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으며, 음표보다 침묵 속에서 깊은 감정을 건네는 이들도 있다. 그 다양한 표현의 방식을 예술의 언어로 존중하고, 그 곁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예술가를 필요로 했다. 이 학교에서 예술가는 완성된 커리큘럼을 전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였다. 장애 예술인의 가능성을 대신 정의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와 방식에 귀 기울이며 함께 탐색하는 존재로 자리했다. 또한 <사이:예술학교>는 '지역'이라는 맥락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장애예술교육은 특정 공간에서만 이루어질 때 지속되기 어렵다. 지역의 기관과 시설, 예술가와 행정, 그리고 참여자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비로소 교육은 삶의 일부가 된다.

완주라는 지역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자, 동시에 장애예술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곳이다. <사이:예술학교>는 지역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예술가와 기관, 그리고 참여자들을 다시 연결하며 '함께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중심에 서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느냐였다. 예술가는 기관의 환경을 이해하고, 기관은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며, 참여자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예술의 주체로 존중받는 경험을 쌓아갔다. <사이:예술학교>라는 이름에는 이러한 관계의 지향이 담겨 있다. '사이'는 어느 한쪽으로 규정되지 않는 자리이며, 서로를 규정하기 보다 연결하는 공간이다. 장애와 비장애, 교육과 창작, 전문성과 일상, 제도와 현장 사이에서 이 학교는 하나의 답보다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이 학교의 배움은 정답을 제시하는 강의에서 끝나지 않았다. 워크숍과 멘토링, 현장 실습을 거치며 예술가는 스스로의 방식과 언어를 점검했고, 장애예술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변화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 <사이:예술학교>는 장애예술교육을 '잘 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교가 아니다. 대신 장애와 예술, 지역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마다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고민과 질문을 함께 나누는 배움의 장이다.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현장 안에서 직접 부딪히며 조금씩 답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핵심이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구조와 흐름 속에서 실천되었는지, 구체적인 시간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개요

1. 오리엔테이션

운영 일시	운영 방식	참여 대상	운영 내용
2025년 8월 11일(월) 14시	1회	예술인, 장애인기관·단체 종사자, 재단 관계자	참여 예술가·기관 소개, 사업 추진 일정 안내 등

〈사이:예술학교〉의 첫 시간은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은 예술가, 기관 종사자, 멘토, 재단이 한 공간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기대, 그리고 우려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예술교육을 왜 '사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려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의 축적임을 공유했다. 특히 예술가와 기관이 처음부터 동등한 파트너로 만난다는 점은 이후 모든 과정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2. 연구모임

운영 일시	운영 방식	전문 멘토	멘토 역할	운영 내용
2025년 8월 ~ 11월	76회	최선영 (문화예술기획자), 문해주 (시각 예술가)	이론 및 실천 중심의 심화 멘토링, 커리큘럼 방향 제안 및 피드백	장애예술교육에 대한 전문 멘토 사례 공유, 개별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등

연구모임에서는 전문가 멘토링, 현장방문, 자유포럼 등 〈사이:예술학교〉의 중심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 시간은 장애예술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시간이자, 각자의 예술 언어를 현장에 맞게 재구성해 보는 실험의 장이었다. 먼저 멘토 강의를 통해 장애예술교육의 기본 개념부터 국내 사례,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고민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단순한 강의 형식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며 서로의 관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실제 교육 대상이 되는 장애인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현장을 이해하고 필요와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 방향을 도출하고 현장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경험을 축적했다. 멘토링 과정에서 멘토와 예술가 1:5 매칭을 통해 각자의 교육 대상과 환경에 맞는 커리큘럼을 함께 고민했다. 멘토들은 방향성을 제시하되, 정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에 집중했다. 자유포럼은 참여자 주도로 운영되는 소규모 모임으로, 연구모임 과정 중 각자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구성·운영되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나 형식보다는 참여자 간 논의와 경험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모임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주제나 개별적인 고민을 심화해 나가는 장으로 기능하였다.

3. 파일럿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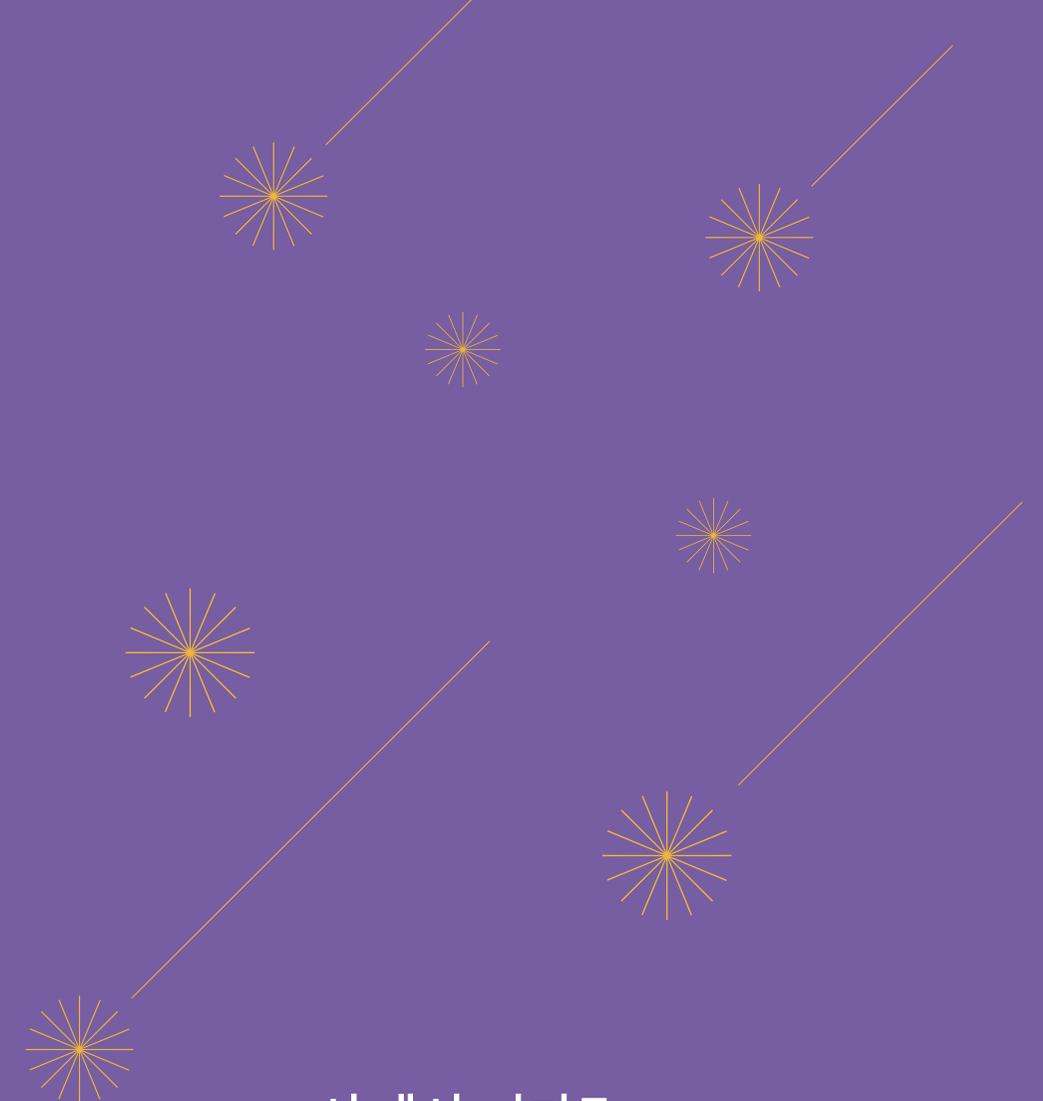
운영 일시	참여 기관	운영 방식	운영 내용
2025년 9월 ~ 11월	완주군 내 장애인 기관·단체 4곳	65회	개발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현장 예술교육 실습 진행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론과 논의가 실제 현장과 만나는 단계였다. 연구 모임에서 개발한 커리큘럼은 각기 다른 환경과 특성을 지닌 기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계획한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어떤 유연성이 필요한지를 직접 경험했다. 멘토의 피드백은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이 단계는 예술가와 참여자, 기관이 함께 '잘해내는 교육'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을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4. 결과공유회

운영 일시	운영 방식	운영 내용
2025년 12월 11일(목) 14시	1회	교육 과정·현장 실습 발표, 참여자 피드백, 성과 분석 및 개선 방향 논의

결과공유회는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이자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예술가들은 각자의 현장 경험을 발표하며 성과와 어려움, 예상치 못한 배움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는 참여자의 변화, 기관의 인식 변화, 그리고 예술가 스스로의 시선 변화가 중요한 성과로 이야기되었다. 동시에 장애예술교육이 지속되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사이:예술학교〉의 2025년은 완결된 결론이 아니라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록이다. 이 시간의 축적은 이후 장애예술교육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함께한 사람들
여수기,
글
마거쯔타
도다

1회차

활동일시 | 2025.11.05(수) 14:00~16:00
 활동장소 | 가족문화교육원 1층다목적강당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공간 구성

색테이프를 이용하여 들어오는 동선과 앉을 곳을 꾸며 집중되고
 다양한 상상 할 수 있게 구성

- 1 오리엔테이션 & 몸짓 자기소개 : (나는 000을 좋아하는 000입니다)
- 2 몸 풀기
- 3 천 놀이 : *천 탐색 *천 거울 놀이
 *천을 던지며 떨어뜨리지 않고 음악 한국에 춤 추기
 *우리만의 춤 만들기 *꼬리 잡기
- 4 무궁화꽃이 춤을 춥니다 : (코끼리, 나비, 소리 질러요 등)
- 5 색 테이프로 나만의 공간 만들기
 *내 방 보여주기 & 초대하고 싶은 사람 or 두고 싶은 물건 소개
- 6 오늘의 느낌 나누기

* 돌아본
시점들

만남과 탐색의 시간으로 나만의 공간 만들기를 통해 각자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다. 곰을 좋아하는 상신님, 색종이를 좋아하는 희춘님, 남자친구가 필요한 향임님, 선생님을 좋아하는 은영님 등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음 수업 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생각보다 반응이나 인지가 약하여 당황했는데 예수재활원 원장님은 살짝 건드려만 주어도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을 표현 하는것에 놀랍고 감동 받았다는 피드백을 주셨다.)

2회차

활동일시 | 2025.11.12(수) 14:00~16:00
 활동장소 | 가족문화교육원 1층다목적강당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좋아하는 색깔의 이름표 골라서 이름 쓰고 앉기
- 2 좋아하는 인형 골라 팔목에 차고 함께 수업하기
- 3 몸풀기 : *천으로 몸풀기 (우리가 만든 춤) *최면술사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곰이 나타났다!!!!
- 4 오늘 기분어때요? : *좋아하는 색깔의 색종이 고르기
 *만들고 싶은 것 만들기
 *한 사람씩 지정하여 색종이 선물하기
- 5 거울 그림
 *다양한 음악 (동물의 사육제, 사계 등)을 들으며 오일파스텔로 거울에 선 그리기
 *선 따라 춤추기
- 6 이야기나누기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인형 일주일동안 잘 돌보고 데려오기

* 돌아본
시점들

전체적으로 대형거울에 그림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완상님이 거울에 그림그리는 것을 낙서하면 안된다며 어린시절 낙서로 인해 혼났던 기억을 이야기 하셨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닌 할 수 있는 것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도움주어야겠다. 은영님이 선따라 춤을 추는데 너무 자유롭고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 은영님은 무용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보인다. 전문무용수와 연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3회차

활동일시 | 2025.11.19.(수) 14:00~16:00
활동장소 | 안주가족문화교육원 2층 가족홀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신문지 나라

- 1 문을 열며: *신문지나라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 신문지 나라에 들어오시려면 신문지로 뭔가 만들어서 보여주셔야 해요/
*자기가 만든 걸 소개 해 주세요.
- 2 주고 받다: *신문지 나라 보물을 소개합니다 (매직스틱)
*보물로 무얼 만들 수 있나요? 각자 소개해 봐요
*신문지 나라에선 아침운동으로 신문지 눈 던지기를 합니다. 같이 뭉쳐 볼까요.
눈싸움 시작!
*신문지를 펴서 높이 쌓아볼까요?

쉬는시간 10분 찢어진 신문지 더미속에 신문지 나라 간식이 숨겨져 있어요.

- 3 나는 이럴 때 화가나요 (슬퍼요)
*선생님은 어릴 때 인형을 사주지 않아서 화가났고 슬퍼어요
*여러분은 언제 화가나고 속상한가요
*그때를 생각하며 신문지를 찢어볼까요? 이야기하면서 찢어볼까요?
*날 힘들게 한 너 사라져!!!!!! (찢은 신문지 던지기) *신문지 이불 덮어주기
- 4 신문지 패션쇼: *찢어진 신문지로 옷을 만들어요 *패션쇼를 해봐요
- 5 이야기 나누기
*신문지 나라에서 나와 돌아준 여러분 감사해요. 어떤 놀이가 가장 즐거웠나요? ~
나와 돌아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종이인 색종이를 선물할게요. 안녕!!

* 돌아본 시점들

수업을 준비하면서 전체스토리텔링을 위해 대본을 썼는데 준비하면서도 재미있고 참여자들도 너무나 흥미롭고 즐겁게 참여하여 2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고 즐거웠다. 참여자들이 대사 한 줄 못 하고 수업이 마감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역할안에서 재미있게 대화하며 수업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다만 수업이 끝나고 산더미 같은 신문지 등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다시 가져오는게 힘들었다.



4회차

활동일시 | 2025.11.26.(수) 14:00~16:00
활동장소 | 안주가족문화교육원 1층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숲으로 책걸이 여행을 떠나요
*쓰고싶은 모자를 골라 쓰고 숲으로 가요
*지나온 수업의 사진들을 감상해요
*숲에선 수건돌리기
*과자따먹기 놀이를 해요
*모두 함께 풍선으로 튕기기놀이를 해요
*숲속에서 보물 찾기
- 2 거울 속 나를 바라봐요
*거울속 내 얼굴을 보며 그대로 그려봐요
*내 얼굴중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이야기해요
*내 몸과 얼굴에 분장을 해봐요
- 3 다같이 누워요
*하늘에 별빛을 바라봐요
*내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이야기 해요

* 돌아본 시점들

라이브연주를 해주시기로 한 보조강사님이 급하게 개인사정으로 못오시게 되어 음악등을 준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오늘은 책걸이 분위기로 숲에서 다양한 놀이를 하였는데 이렇게 놀기만 해도 되나, 하는 강사스스로의 의문이 들었다. 좀 더 세밀하게 상황과 스토리텔링을 기획했어야 하는데 아쉽음 스스로 든다.



5회차

📅 활동일시 | 2025.11.21(금) 10:00~11:30

📍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1~

👥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자기소개 & 만남
 - *나의 이름과 좋아하는 것을 몸짓으로 소개하기
- 2 몸풀기
 - *무궁화꽃이 간지럼 태웁니다. 소리질러요. 자리에 누워요. 하품합니다. 바람입니다. 지렁이입니다. 공룡입니다.
- 3 소리가 이끄는 공간 여행
 - *사운드 : 자연, 우주, 놀이공원 등 다양한 소리로 공간의 상상 자극
 - *미디어 : 소리에 반응하는 빛과 프로젝션 영상 제시
 - *참가자는 눈을 감고 소리를 듣다가, 눈을 뜨면 천장에 펼쳐진 빛의 이미지와 함께 감각적으로 몰입
- 4 빛으로 그려보기
 - *반짝이는 빛이 나는 봉을 활용해 허공에 그림그리기, 동물되어보기.

* 돌아본 시점들

지체 장애인 지후를 중심으로 바닥에 누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짰는데 지후가 결석하여 그 점이 가장 아쉬웠다. 지후의 경우 어떤 참여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불지 않은 풍선 여러 개를 한참을 가지고 홀로 노는 걸 보았는데 선생님께서 저렇게 조물락 거리는 걸 좋아한다 하셨다. 1회차이기에 아이들에 대해 알게 된 점을 더 보완하여 수업을 기획할 기회가 없음이 아쉬웠다. 차후에는 1회차 이상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듯 보인다.





♥ 강나루

활동 기록



1. 나의 실천 과정 정리

? 본 사업 참여 이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가졌던 '첫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 "나는 나의 무엇을 나눌 것인가"

? 실천 과정 중 새롭게 떠오른 질문들은 무엇이었는지

☞ "나는 지금 사람을 보고있는가", "연극의 본질은 뭘까"

? 해당 질문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떤 방식으로 탐색해 왔는지

☞ 내가 예술교육 해오던 방식들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이 순간 사람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익숙한 티칭 스킬과 방법들에 기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게 되었다. 이 질문들은 수업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처음 1, 2 차시 때 1교시는 유난히 힘들었다. 쉬는 시간 돌아보니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다. 2교시가 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참여자들을 바라보게 되자 여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질문을 밀어 붙이기 보다 숨을 고르고 질문 앞에 서서 머무는 방식으로 탐색하게 되었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어떠한 예술 활동을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는지

☞ 1. 예수재활원의 참여자 6명과 놀이, 오브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연극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궁극해하고 알아가면서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기획하였다.
2. 전북푸른학교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연극, 퍼포먼스, 미술, 음악 분야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익숙한 교실 공간을 낯선 장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푸른 바다'로 구성하고 여러 감각이 깨어나 상상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그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적 성찰과 성장의 지점은 무엇이었는지

☞ 1. 예수재활원
'그들의 열려있음과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이미 예술이라는 사실과 스킬이나 형식을 앞세우기 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감각을 계속 확인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예측 불가능 리액션은 '아, 내가 또 스킬로 하려했구나'를 발견하게 해주었고 그 순간 멈추어 서게 했다. 원칙이 분명했던, 거울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낙서라고 규정하고 불편해 했던 한 참여자에게 어떻게 하면 그를 자유롭게 해줄까를 고민했었는데 멘토링을 받으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권리'로 인정하자 그가 자유롭게 신문을 찢으며 부모를 잃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던 기억이 오래 남는다. 또한 심심한 신문지 나라 공주의 편지를 스토리텔

링으로 문 밖에서 수업을 열자 참여자들은 '같이 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신문지 나라에 들어왔고 배와 모자, 비행기, 표창을 만들고 신문지 섬에서 보물을 찾고,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신문을 찢으며 속삭여 이를 옷으로 만들어 패션쇼를 하는 등 우리만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갔다. 특히, 사람을 챙기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이 신문지 나라에서 '놀아주는 친구'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몰입하는 순간은 연극의 본질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야기'임을 인식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 2. 전북푸른학교

전체적인 방향과 의도는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1차시로 진행된 수업이라는 점에서 참여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 황체어만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한 아이를 중심으로 야심차게 기획한 '뽕굴기 프로젝트'는 해당 아이의 결석으로 실행되지 못했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던 또 다른 아이에게 마음이 내내 머물렀다. 수업이 끝날 즈음에 관찰과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그 아이의 니즈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경험을 통해 개별성과 고유성이 중요시되는 장애예술교육에서 1회차 수업은 지양되어야 하며, 최소한 참여자를 이해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연속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시도한 예술가들과의 협업은 나의 감각을 깨어나게 하고 확장시키는 귀한 경험이었고, 서로 다른 시선과 접근 방식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은 시행착오를 포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도전의 지점으로 남았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본 사업을 통해 나는 어떠한 '되어보기'를 해보았는지

☞ 완성된 수업을 제공하고 잘 이끄는 예술가가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며 사람과 함께 상화(이 이야기)에 머무는 '되어보기'를 경험했다.

? 그 경험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 참여자들만이 가진 독특한 개별성과 고유성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나의 예술적 상상력을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예술교육 이전에 사람을 바라봄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참여자들 또한 이야기 안에서 '되어보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을 세심하게 기획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 향후 누구와, 어떤 활동 또는 예술적 시도를 해보고 싶은지

☞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수업을 구성하고 서로의 니즈를 이해한 상태에서 시행착오마저 예술의 일부로 끌어안는 작업을 시도해 보고 싶다. 또한 참여자들과 야외 공간에서의 수업을 시도해 보고 싶다.

1회차

활동일시 | 2025.11.20(목요일) 10:00~11:3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1학년 교실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차시 수업에서는 바이올린과 친해지기, 악기 탐색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 수업 초반, 아이들의 긴장을 풀기 위해 <곰 세 마리>, <비행기> 등 익숙한 동요를 함께 부르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노래를 함께 부르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금세 마음을 열었고, 이후 활동에 대한 집중도 또한 높아졌다. 이어 실제 바이올린을 보여주며 현(줄), 브릿지, 울림구멍(f-홀), 소용돌이(스크롤) 등 바이올린의 기본 명칭과 역할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였다.
 - 그 후 준비한 바이올린 키트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아이들은 바이올린 명칭스티커를 학습한 위치에 붙이고, 바디에 색칠하며 각자의 개성을 담은 '나만의 바이올린 친구'를 완성했다.
집중력과 몰입도가 높았고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다음 활동은 키트에 포함된 바이올린 명칭 색칠하기였으나, 아이들 대부분이 글자를 읽기 어려워 이 활동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대신 참여해주신 플루트 보조강사님과 함께하는 음악 감상 시간으로 전환하여, 간단한 리듬과 선율을 들려주고 악기 소리 차이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새로운 악기 소리에 큰 흥미를 보였다.
-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진행될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음악 탐색을 간단히 소개하며 음악 속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맞추는 활동을 예고하였다.

* 돌아본
시점들

- 아이들마다 성향과 집중도가 다르므로 향후 수업에서는
- ◆ 활동 전 간단한 몸풀기 (동요 부르기)
 - ◆ 짧고 다양하게 구성된 감각 활동 (모의 활 잡기, 활 체조) • 개별 난이도 조절



2회차

활동일시 | 2025.11.12(수) 14:00~16:0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1학년 교실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2차시 수업에서는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를 활용한 음악 감상·표현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 수업 시작 전, 지난 시간에 배운 바이올린 명칭 복습을 간단한 퀴즈 형식으로 진행했다.
아이들은 정확한 용어를 완벽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힌트를 주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대답했다. 이후 1차와 동일하게 동요 부르기(곰 세 마리·비행기)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본 활동에 들어갔다.
 - 본 활동에서는 먼저 생상스 작곡가 소개 후, 바이올린으로 몇 가지 동물의 선율을 연주해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종이에 "이 소리가 어떤 동물처럼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연상퀴즈 같은 방식이라 굉장히 흥미로워 했다.
 - 그 다음 실제 오케스트라 음원으로 감상하며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비교해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추는 시간을 가졌다.
총 13곡 중 일부는 처음 듣는 선율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긴 동물"이라는 단서만으로 준서가 '노새'를 정확히 맞추는 등 아이들의 관찰력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다.
 - 또한 아이들에게 오펜바흐 <강강>과 생상스 <거북이>를 비교 감상하도록 했다.
같은 선율이지만 강강은 빠르고 신나는 느낌, 거북이는 느리고 엉금엉금 걷는 느낌이라는 차이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들려주었다.
- 마지막에는 다음 시간에 소라엘 선생님과 함께 참여형 합주수업(거북이)이 진행된다는 내용을 미리 안내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 돌아본
시점들

- 2차시는 특별한 문제없이 매우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감상, 그림표현, 맞추기 활동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 감정을 연결하는 능력도 두드러졌다.
다만 음원 감상 시간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 ◆ 짧은 단위의 감상 ◆ 즉각적인 질문 또는 몸으로 표현하기
 - ◆ 활동 전환 속도 조절 등을 병행하면 참여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회차

활동일시 | 2025.11.26(수요일) 10:00~11:3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1학년 교실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3차시 수업은 소라엘 선생님과 함께하는 참여형 합주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 이날은 지난 수업에서 감상했던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거북이와 오펜바흐 강강의 선율을 실제로 함께 연주해보는 시간이었다. 먼저 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핸드벨, 작은북, 마라카스 등 소악기를 소개하고 소리 탐색을 충분히 해 본 후, 바이올린 선율과 피아노 반주, 그리고 아이들의 소악기가 함께하는 합주를 시도했다.
- 완성도 있는 연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놀이하듯 참여하는 경험이 핵심이었으나, 12차시의 감상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며 합주에 참여했다. 특히 거북이의 느리고 엉금엉금한 리듬에서는 아이들이 각자 선택한 악기로 조심스럽고 천천히 선율을 따라갔고, 이후 신나는 강강 부분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축제처럼 활기차게 연주하며 동물의 사육제 피날레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 ♪ 수업 마지막에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멋지고 재미있게 합주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며 4차시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 돌아본 시점들

3차시 수업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아이들이 음악을 듣는 아이들에서 직접 음악을 만드는 아이들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리듬을 느끼고, 자신이 낸 소리로 함께 음악에 참여한다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었다.



4회차

활동일시 | 2025.11.27(목요일) 13:00~14:0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1학년 교실

참석인원 | 7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마지막 4차시 수업에는 전 시간에 사용했던 소악기보다 더 큰 울림을 낼 수 있는 악기들을 소라엘 선생님이 준비해 오셨다.

- 큰북, 작은북 등 다양한 타악기를 직접 두드려 보며 소리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게 했고, 바이올린은 주선율을 연주하며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앙상블을 이루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악기의 특성을 살려 주선율과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연주했는데, 각각 다른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생각보다 완성도 높은 앙상블이 만들어졌다.
- 마지막에 모두 함께 끝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 연습했는데, 아이들이 서로 호흡을 맞추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결과 아주 깔끔하고 에너지 넘치는 엔딩이 완성되었다. 연주를 마친 뒤 아이들은 스스로 너무 즐거웠는지 어떤 친구는 점프를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교실을 한바퀴 돌 정도로 흥이 올랐다.
- ♪ 음악으로 만드는 놀이가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성취감을 주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 돌아본 시점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런 음악 탐색 활동은 아이들에게 음악이 주는 행복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해준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져서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음악과 더 자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강지수

활동 기록



1. 나의 실천 과정 정리

❓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 장애 아동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일상 속에서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수업을 진행하며 나는

☞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 '아이들의 반응에 어떻게 귀 기울일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질문하게 되었고, 그 질문을 따라 수업의 흐름과 밀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나갔다.

바이올린 연주를 중심으로 한 음악 감상과 참여 활동을 장애 아동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결과나 완성도보다 음악을 직접 듣고, 만지고, 반응하는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세운 계획보다 아이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선택을 존중할 때 수업이 더욱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가르치는 예술가가 아닌, 함께 음악을 만들어 가는 동료가 되어보는 경험을 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음악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나 역시 아이들의 반응에 귀 기울일수록 수업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 활동은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상의 예술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감상·탐색·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음악 프로그램 이어가고,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움직임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1회차

활동일시 | 2025.10.13.(월)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둥글게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자리부터 만들었다.

-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꺼내며 마음을 조금씩 여는 시간이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며 즉흥적으로 악기가 될 만한 물건을 찾아보고, 예술가들이 가져온 작은 악기들도 건네 쓰며 소리가 가진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애창곡으로 넘어갔다. 노래를 소개하고, 작은 소품을 걸치거나 바꿔 달며 자신을 표현해보고, 연주하던 물건은 옆 사람에게 계속 넘어갔다. 모두가 공간을 행진 하듯 움직이며 서로의 노래에 합류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 돌아본
시점들

다음 활동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스스로를 더 자유롭게 꾸밀 수 있도록 재료의 폭을 넓히는 편이 좋겠다. 악기 역시 부는 악기를 제외하고 더 다양한 소악기를 준비해 선택의 폭을 만들어두는 것이 안정적이다.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 위해 가사 PPT를 미리 준비하고, 스피커와 음향 상태도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공간 구성은 테이블 없이 의자만 둥글게 배치해 서로의 얼굴이 잘 보이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중간에 짧은 쉬는 시간을 넣어 흐름을 정돈하고, 참여가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불안감을 낮추거나 쉬어갈 수 있는 작은 휴식 공간을 마련해두면 전체 분위기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2회차

활동일시 | 2025.10.20.(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9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간단한 몸풀기 뒤, 애창곡을 기준으로 자기만의 동작을 만들어보는 단계로 들어갔다.

- 마치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몸으로 편집하는 느낌이었다. '우주'가 떠오르는 음악을 틀어 두고, 모두 멈춘 상태에서 한 사람의 유영으로 시작해, 터치가 닿는 순간 퍼져 나가는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 마치 하나의 생명체로 확장되는 듯한 순간이 있었다. 이후 마스킹테이프 무대를 설정하고, 즉흥과 합의를 오가며 공동의 안무를 함께 만들어 냈다. 마지막엔 무대를 걸어내며 마무리했다.

* 돌아본
시점들

즉흥 움직임에서 몰입도와 표현력이 돋보인 두 명을 선발해, 이후 행사에서 짧은 퍼포머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공동으로 만든 안무는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정리하고, 다음 회차에서는 편집된 최종 음원을 사용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중간에 쉬는 시간을 도입해 참여자들의 리듬을 조절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을 고려해 활동 종류를 조금 더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개선해 음악, 마이크, 재생 환경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앞으로의 퍼포먼스 완성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회차

활동일시 | 2025.10.27(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20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랜덤으로 재생되는 애창곡 메들리를 따라 움직임을 연결했다.
- PPT로 길이를 조절하거나 곡을 추가-재배열하면서, 몸과 음악의 흐름을 동시에 바꾸는 재미가 컸다. 이어 '나는 착하고 악이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즉흥 움직임으로 표현해봤는데, 모두가 바다생물이 되거나 수영하듯 흘러가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마지막으로 단체 후렴구를 만들어 애창곡 메들리에 포함시키고, 하나의 합창처럼 함께 불렀다.
- 전반적으로 서로의 노래, 몸, 취향이 조용히 섞여가며 집단의 리듬이 생겨나는 과정이 더 선명하게 느껴진 시간들이었다.

* 돌아본 시점들

애창곡 메들리의 비트를 어떤 제작 음원으로 확정할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애창곡이나 원곡 음원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활용이 가능한지 상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주 테마에 사용할 음원도 함께 확정해야 전체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다. 흐름에 맞춰 PPT 역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다음 수업과 전시에 활용할 '돔'의 재료를 찾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안무는 이번 회차 안에 확정하고, 공통 안무를 기록해 하나의 세트르 제작해두면 이후 리허설과 공연 준비가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4회차

활동일시 | 2025.11.3.(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8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세 가지 색의 종이를 꺼내 지금 마음의 모양을 더듬어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 종이를 찢고 구기고 접어보며 손끝의 촉감으로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묘하게 솔직했다. 그렇게 만든 조각들 가운데 지금의 나와 가장 닮아 있는 세 조각을 골랐다. 이어서 나를 가로막는 것들을 떠올려 그 종이에 적었다. 방해가 되는 감정이나 상황들을 반짝이펜, 아크릴 마커, 비밀펜까지 섞어 적다 보니 표면 위로 무언가가 드러나거나 숨겨지는 느낌이 동시에 생겼다.
- ▶ 각자 돔 앞에 서서 자신이 적은 것들을 붙이며 나왔다.
- 말하는 순간마다 종이가 가진 결이 마음에 그대로 옮겨지는 듯했다. 그다음은 별자리 만들기였다. 나를 가로막는 것로부터의 해방을 하나씩 구멍으로 뚫어냈다. 안쪽에 조명을 켜자, 돔 표면에 흩어진 작은 빛들이 서로 닿아 새로운 별자리가 되었다. 그 빛을 함께 바라보며 잠깐 고요하게 머물렀다.
- ▶ 그 빛을 이어 각자의 애창곡으로 넘어갔다.
- 돔의 조명 아래에서 각자 노래에 맞는 동작을 만들었고, 몸의 동선과 음악의 감정이 은근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동작들을 기록하며 마무리했다.

* 돌아본 시점들

각자 기록한 동작을 잊지 않도록 동작 컷을 이미지로 추출해 가사 PPT 안에 삽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연에 사용할 소품의 종류와 개수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전체 흐름을 위해 동선과 안무를 확정하고, 참여자별 순서와 역할을 배정하면 리허설 과정이 훨씬 안정된다. 마지막으로 PPT와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재생할지, 가장 매끄러운 방법을 찾아 세팅해 두는 것이 다음 단계 준비의 핵심이다.



5회차

활동일시 | 2025.11.10(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완주군가족교육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20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기관 외 활동으로, 매드 프라이드 퍼레이드 피날레 퍼포먼스를 위한 단체 리허설을 강당에서 진행했다.
- 사전에 퍼포먼스 구조와 동선, 필요한 재료들을 다시 확정하고 구매까지 마친 상태였다. 넓은 공간에서 행사 당일과 비슷한 음향·영상 시스템을 사용해 전체 흐름을 맞춰보니 실제 퍼레이드의 공기가 조금 먼저 느껴졌다.
- 장갑, 비누장미, 악기, 장식 소품들을 배분하고 워밍업을 한 뒤, 음원과 마이크, 보편대, 악보, 프레젠테이션까지 세팅해 실시간으로 연주와 컨트롤을 맞춰봤다. 큐사인과 이동 동선도 정확히 잡았다. 입장 → 퍼레이드 → 대형 1 → 대형 2 → 퇴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연결되었다. 관객 참여 장면을 위해 도우미도 섭외해 실제처럼 구성해보았다.
- 퍼포먼스 대사를 5명이 나눠 부분별로, 또 전체 흐름으로 연습했고, 애창곡 메들리를 기반으로 한 안무와 가사 PPT를 만들어 순서대로 맞춰보았다. 끝에는 전체 리허설로 모든 구성 요소를 합쳐보았고, 그제야 이 퍼포먼스가 어떤 감정과 리듬으로 완성될지 선명하게 느껴졌다.

* 돌아본 시점들

활동 내용이 많아 휴식 환경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리허설과 행사 당일 리허설을 모두 진행할 예정이며, 전체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6회차

활동일시 | 2025.11.21(월요일) 10:00~11:3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1학년 교실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교실 전체를 바닷속처럼 꾸미는 일부터 시작했다.
- 푸른 반짝이 발과 매트, 천과 이불, 방수포, 튜브, 바다 소리가 한꺼번에 놓이자 익숙한 교실이 전혀 다른 공간처럼 보였다. 아이들이 이름표를 붙이고 들어오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말해주었고, 연아, 시아, 준호, 준서, 지완의 목소리가 차려로 쌓였다.
- 몸을 풀기 위해 무궁화 꽃이 놀이, 동물 따라하기, 얼음땀, 스티커 붙이기가 이어졌고, 어느 순간 모두 자연스럽게 바다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마법봉을 들고 무엇이든 변신할 수 있는 듯한 놀이가 펼쳐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풀렸다. 중간중간 전환과 휴식을 넣어 아이들의 리듬을 따라갔다.
- 다음은 공간을 어둡게 하고 바닥에 누워 떠나는 소리 여행이었다. 천장에는 소리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펼쳐졌고, 학급 선생님들까지 함께 누워 참여하면서 교실에 묘한 안정감이 생겼다. 튜브 위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따라 이미지가 움직이자 아이들의 호기심이 바로 반응했다.
- 우주의 소리로 시작해 몸을 이완시키고 상상 속 여행을 떠났다. 기차역 소리를 들으며 장소를 맞추고 따라 해보는 순간마다 아이들의 집중이 깊어졌다. 숲에서는 동물들의 소리를 맞추고 따라 하면서 각자의 상상 속 숲을 만들어냈다. 빛속으로 이동해 레인스틱을 흔들어보며 빗소리를 흉내 냈고, 바닷속에 이르러서는 이불 아래로 들어가 물결 속을 지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돌고래와 바다의 소리가 겹치며 아이들 역시 소리로 응답했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공간 속 움직임을 이어갔다.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동물이 될지 제안하고, 모두가 그 모습을 따라 움직였다. LED 스틱을 흔들어 만들어내는 빛의 궤적이 바닷속 생명체처럼 보였고, 아이들이 상상하는 세계가 빛과 몸짓으로 눈앞에 펼쳐졌다. 전체적으로 시각·청각·신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교실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전환되는 시간이 되었다.

* 돌아본 시점들

소리 여행 이후 아이들의 에너지는 단번에 높아졌고, 활동을 끊어 전환하기보다는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편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다. 상상력과 신체가 함께 열리면서 놀이의 속도가 붙었고, 공간 전체가 활기로 채워졌다. 다만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다른 방식의 연결과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 김정운

활동 기록



1. 나의 실현 과정 정리

🔍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 사업에 참여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몇 회차의 프로그램을 마친 뒤, 한 참여자가 “김정운 선생님!”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던 장면이다. 단순히 이름을 기억해주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수업에서 흔히 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함께 웃고 춤추고 노래하며 시간을 보냈던 터라 ‘이름’과 ‘선생님’이라는 호칭의 조합이 더욱 낯설고 특별하게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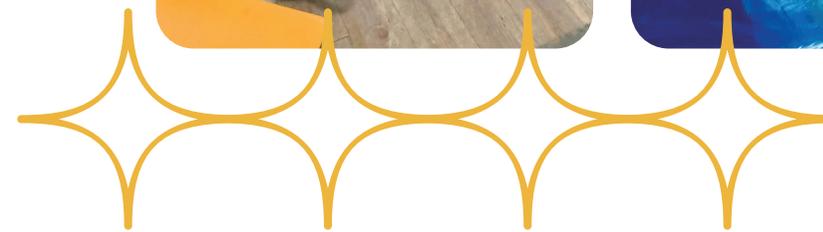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내가 진행한 프로그램에서는 각자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 나누었다. 시간, 가족, 돈과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과거의 상처, 편견과 차별의 경험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투명잉크(비밀펜)로 적은 말들은 굳이 발표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중에는 나에게만 조용히 건네준 이야기들도 있었다. 쉽게 꺼내기 어려운 개인적인 고백들이었다.

참여자들과 함께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에 작은 구멍을 내는 과정 속에서, 나 역시 나를 막고 있던 시선과 기대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질 때, 그 틈으로 스며든 빛들은 별처럼 반짝였다. 그렇게 타인의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나 또한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람들과 만나고 시간을 나누는 사이, 내 안에 남아 있던 작은 감각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고, 앞으로 또 언제 누구와 어떻게 길을 잃고 찾으며 헤쳐나갈지 즐겁게 상상해볼 수 있었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모두 저마다 다른 이유와 인연으로 이곳에 모였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프로그램을 준비한 협업 예술가들, 너른 마음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이런 만남을 기획하고 만들어준 재단 관계자분들, 반복되는 행정 업무 속에서도 밝은 태도로 함께해준 재단 담당자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웃었던 프로그램 참여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1회차

활동일시 | 2025.10.13.(월)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프로그램 안내 및 자기소개
예술가 및 참여자 자기소개, 내가 좋아하는 것
- 2 악기 찾기
*주변에 악기가 될만한 물건을 찾아보기
*예술가들이 준비한 소악기들을 활용하기
- 3 애창곡 부르기 및 감상 나누기
*자신의 애창곡 선택하여 함께 나누기
*공간을 행진하며 움직임과 악기연주로 애창곡 동참하기

* 돌아본
시점들

- ◆ 자신을 꾸밀 수 있는 재료를 보다 다양하게 준비
- ◆ 다양한 소악기 준비
- ◆ 노래 가사(PPT), 스피커(음향 사전확인) 준비
- ◆ 자리배치(테이블 없이 의자만 원형 배치)



2회차

활동일시 | 2025.10.20.(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9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몸풀기
- 2 자신의 애창곡과 함께 동작 만들기
- 3 '우주'를 연상하는 음악과 함께 우주에서의 '나'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기
- 4 마스크테이프로 무대를 설정하기
- 5 공동의 안무 창작하기

* 돌아본
시점들

- ◆ 즉흥움직임의 몰입도와 표현력이 높은 2명을 선발하여 이후 행사 때 퍼포머로 짝막하게 공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
- ◆ 공동의 안무 묶기
- ◆ 다음 회차에서는 편집된 최종 음원으로 활동하기



3회차

활동일시 | 2025.10.27(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20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위밍업
- 2 애창곡 매들리 랜덤으로 부르며 움직임과 연결하기
마디 길이 조절, 곡 순서 재배열
- 3 “나는 착하고 약이 없습니다”
슬로건을 즉흥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 4 후렴구 만들고 애창곡 매들리와 함께 부르기

* 돌아본 시점들

- 애창곡 매들리의 경우, 선율 없이 하나의 비트에 노래하는데, 음악적 완성감을 위해 화성이나 멜로디를 입히는 것이 좋을지, 참여자들의 특성(박자와 리듬, 정확한 음을 맞추기 어려움)을 고려하여 비트만 제공할지, 혹은 비트만 제공하되 보다 다양한 음색의 악기로 효과를 줄 것인지 모색하기
- ‘돔’ 재료 찾기



4회차

활동일시 | 2025.11.3.(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8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지금 내 마음의 모양을 세 가지 색깔의 종이로 표현하기 : 찢고 구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 마음의 모양을 탐색하고 가장 내 마음과 닮아있는 종이 세 조각 고르기
- 2 나를 가로막는 것
*나를 방해하는 것, 가로막는 것, 더 쉬운 표현으로는 나를 힘들게, 불편하게 하는 것을 떠올리고 이를 내 마음과 닮아있는 종이에 적기
*비밀로 붙이고 싶은 것은 비밀 펜으로 적기
- 3 돔에 붙이기
*한 명씩 돔에 붙이며 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 4 별자리 만들기
*나를 가로막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표현하며 돔에 구멍을 뚫기
*별자리처럼 표현된 돔의 빛을 바라보기
- 5 애창곡 동작 만들기
*돔의 빛과 함께 각자 자신의 애창곡에 해당하는 동작을 만들기

* 돌아본 시점들

자신의 동작을 잊지 않도록 동작 컷을 가사 PPT에 이미지로 삽입



5회차

활동일시 | 2025.11.10(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안주가족교육문화원 1층 다목적강당

참석인원 | 1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위밍업**
 - * 신체와 감정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및 리듬 위밍업을 실시함.
 - *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풀며,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적 에너지를 형성함.
- 2 악기 및 소품 선정 및 네이밍**
 - * 각 참여자는 자신이 사용할 악기 또는 소품을 선택하여 개별적 정체성과 퍼포먼스 참여의 주체성을 강화함.
- 3 매드프라이드 퍼포먼스 연습**
 - * 우주를 주제로 한 즉흥 움직임 탐색을 진행하여 자유로운 신체 표현을 유도함.
 - * 관객에게 꽃을 전달하는 참여형 퍼포먼스 연습
 - * 원형 대형으로 전환
- 4 애창곡 메들리 구성 및 연습**
 - * 각자의 애창곡을 중심으로 한 메들리 구성에 돌입함.
 - * '메들리 시작 멘트'를 맡을 진행자를 선발하고, 자연스러운 연결 흐름을 탐색함.
 - * 노래 당사자는 자신만의 신체 동작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다른 참여자들은 해당 동작을 따라하거나 악기 연주로 참여함.
- 5 애창곡 메들리 멤버 조정**
 - * 곡의 흐름과 에너지 균형을 고려하여 곡이 중복되거나 매칭되지 않은 참여자들을 재배치함.
 - * 음악적 조화와 무대 구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동선 및 참여 방식 조정 진행.

* 돌아본 시점들

- ◆ 우주 퍼포먼스 동선 확인
- ◆ 최종 참석인원 확인



6회차

활동일시 | 2025.11.7(금) 10:30~11:20
 활동장소 | 마음사랑병원 마음드림홀

참석인원 | 10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오늘 내가 걸어온 길을 떠올리고, 그 길을 걸어오는 나의 발걸음, 기분 등을 탐색하기
- 2** 2개의 조로 나누어, 조별로 '우리의 발걸음'을 대표하는 모델을 선정하고 발걸음을 그리기
- 3** 우리가 담고자 하는 '길'과 그 길에 담긴 이야기를 표현해보기
- 4** 공유하기

* 돌아본 시점들

- ◆ 공간 특성, 제한된 시간 등의 이유로 활동을 변경해 진행함
- ◆ 개인의 작업보다는 공동의 작업을 선호하여, 다음 회차에도 공동의 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준비



7회차

활동일시 | 2025.11.28(금요일) 10:30~11:20
활동장소 | 마음사랑병원 드림키친

참석인원 | 10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마음사랑병원에 오는 길' 작품 사진을 함께 보며, 그때의 작업 과정과 느꼈던 점을 떠올린다.
- 2 마음사랑병원에 오는 발걸음을 상상하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고 있을까?'를 자신의 발자국 이미지에 담아 표현한다.
- 3 완성된 작품에 담긴 의미를 글로 정리한 뒤, 집단원들과 나누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한다.

* 돌아본 시점들

시간이 부족하여 이후 꽃길에 발자국을 표현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못하였고, 다음을 기약함



8회차

활동일시 | 2025.11.26(수) 10:00~11:30
활동장소 | 전복푸른학교 1학년 교실

참석인원 | 7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바이올린 악기에 대한 이해**
 - * 지난 시간 배웠던 바이올린의 주요 명칭(몸통, 현, 활, 지판 등)을 간단히 복습한다.
 - * 직접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며,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시 확인한다.
 - * 실제 바이올린과 비교하며 구조적 차이와 공통점을 이야기해본다.
- 2 **생상스 - 동물의 사육제**
 - *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가 어떤 곡인지 간단히 소개하고, 각 악장에서 등장하는 동물들을 Q&A 형식으로 떠올려본다.
 - * '거북이', '백조', '사자', '코끼리' 등 동물들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상상해보며 이야기 나눈다.
 - * 아이들이 알고 있는 동물이나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3 **악기 탐색**
 - * 오늘 연주에 사용될 다양한 악기를 하나씩 소개하며 이름과 특징을 알아본다.
 - * 각 악기의 연주방법(두드리기, 흔들기, 긁기, 켜기 등)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직접 따라 해본다.
 - * 간단한 리듬이나 짧은 소리를 자유롭게 연주해보며 악기들의 음색 차이를 느껴본다.
- 4 **동물의 사육제 - '거북이 & 강강' 합주**
 - * 오늘 함께 연주할 두 곡의 주요 특징(거북이: 느린 템포 / 강강: 빠르고 경쾌함)을 소개한다.
 - * 피아노와 바이올린 반주에 맞춰 각자 선택한 악기로 리듬을 맞추며 연주해본다.
 - * 느린 곡에서 빠른 곡으로 넘어갈 때의 템포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는 합주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 돌아본 시점들

느린 템포의 곡보다 빠른 템포의 곡을 선호하며 참여도가 더 높음을 감안해 다음 회차 활동 준비 필요



9회차

📅 활동일시 | 2025.11.27(목요일) 10:00~11:30
 📍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1학년 교실

👤 참석인원 | 9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바이올린 악기,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이해**
 - ★ 바이올린의 구조(몸통, 현, 활)와 기본적인 연주 원리를 소개한다.
 - ★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곡인지, '거북이'와 '강강'이 각각 어떤 분위기와 특징을 지니는지 감상하며 이해를 돕는다.
 - ★ 두 곡의 템포 차이와 표현 방식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나눈다.
- 2 악기 탐색**
 - ★ 다양한 악기들을 직접 만져보고, 악기 이름과 소리를 들어보며 특징을 탐색한다.
 - ★ 각 악기의 연주방법(두드리기, 흔들기, 켜기 등)을 알아보고, 자신이 선호하는 악기를 선택해 간단한 소리를 내본다.
 - ★ 악기별로 어떤 분위기나 동물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본다.
- 3 동요 메들리**
 - ★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는 동요들을 선정하여 피아노와 바이올린 반주에 맞춰 함께 노래한다.
 - ★ 단순히 부르는 것을 넘어서, 가사에 맞는 표정이나 간단한 몸짓을 더해 음악적 몰입을 경험한다.
 - ★ 악기 소리와 노래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느껴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4 '동물의 사육제 - 거북이 & 강강' 합주**
 - ★ 느린 템포(거북이)에서 빠른 템포(강강)로 전환될 때 어떻게 호흡과 리듬을 맞추는지 연습한다.
 - ★ 곡의 종지(마무리)에서 음을 길게 끄는지, 짧게 끝내는지 등 마무리 방법을 안내한다.
 - ★ 각자 맡은 악기 역할을 유지하며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연주를 완성해본다.
 - ★ 템포 변화에 맞춰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유도하며 음악적 흐름을 함께 만들어간다.



소라엘

활동 기록



1. 나의 실현 과정 정리

☞ 멘토링 시간에 던졌던 '첫 질문'이 여전히 또렷이 남아 있다. "다년간 다양한 예술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성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었다. 멘토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지금까지의 예술 경험 중 무엇이 가장 재미있었는지를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그 제안을 곱씹으며 생각해보니 우리는 누구나 하나쯤의 '18번', 즉 애창곡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시설 내에 노래방 기기가 구비되어 있을 정도로 이분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애창곡'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 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어쩌면 새로운, 특별한 예술적 표현 방식을 배우고자 사이예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깊이 성찰해보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이미 답을 찾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에 대한 해답 또한 그들을 만나는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가기'로 이어졌고 이는 곧 마음사랑병원 이용자들의 작업 주제로 연결되었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며 어쩌면 지금의 일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인 마음사랑병원 낮병동으로 향하는 길. 그 길 위에서 이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걸어올까. 이들에게 마음사랑병원은 어떤 의미의 공간일까. 이분들과 어떤 작업을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이분들을 알아가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속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머무는 지점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일부터 시작했다. 누구나 지금의 위치, 지금의 자리, 지금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걸어온 고유한 길이 있다. 그 길 위에서의 경험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왔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비추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번 작업을 통해 도출된 나의 예술적 주제는 '길'이었다.

☞ 협업 과정에서 나는 개인적인 성찰의 지점을 마주하게 되었다. 기존의 나의 작업 방식은 근거 기반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고, 모호함을 최대한 배제하는 태도에 가까웠다. 소통 방식 또한 그러했다. 그러나 예술가들과의 협업 속에서 이러한 성향이 때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기다림과 수용의 자세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보다 나은 협업을 위해 내가 선택한 하나의 방식은 나이와 직위 등 개인적인 정보를 굳이 묻지 않고 서로를 '선생님'이라 호칭하는 것이었다. 협업에 불필요한 위계나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다. 이는 판단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나름의 장치였으며,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안정장치로 기능했다.

☞ 이 선택의 이면에는 어쩌면 내가 내 안의 치료사 페르소나를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예술가로서 관계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다. 그 결과 나는 치료사가 아닌 예술가로서 관계 맺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내 안의 예술성을 의심하기보다 믿고 실행할 수 있었다. 사이예술학교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나의 예술성을 만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며, 다시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확장시켜본 경험은 나만의 예술적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도출하게 했다. 또한 그동안 생각에 머물러 있던 것들을 예술적으로 풀어내고 싶다는 더 큰 동기를 갖게 되었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앞으로 나는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미술 매체로 풀어내고, 음악을 함께 만들며, 때로는 움직임이나 하나의 극으로 확장하는 등 보다 다양한 예술의 언어를 통해 내가 가진 예술적 주제를 지속적으로 표현해 나가고자 한다.



1회차

활동일시 | 2025.10.16(목요일) 14:10~15:00
 활동장소 | 마음사랑병원 낮 병원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I. 활동 환경 및 진행 상황

본 프로그램은 예정된 인원보다 1명이 추가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으며, 같은 시간대 인근 강당에서 대규모 수업이 진행되어 프로그램 비참여 인원의 이동이 잦아 다소 산만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진행은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수행되었다.



II. 참여자 반응 및 전반 평가

참여자들은 다소 느린 반응 속도를 보였으나, 적절한 언어로 자신의 음악 감상 소감과 연주 소감을 표현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선호하는 노래를 소개하는 등 음악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나타냈다. 참여자 기능 수준을 고려해 난이도가 낮은 기본 4박 리듬 연주 수행시 한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타이밍에 맞춘 수행이 가능하였다. 합주 활동에서는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다.



III. 예술가 관찰 소견

오늘 활동을 위해 크기와 재질이 다른 악기를 준비하였다. 참여자들의 악기 선택(개인 성향을 반영)과 연주 시 손 기능 및 인지적 기능 수준을 관찰하였다. 참여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다양했으나, 기능 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참여 양상을 보였다.



IV. 메인 활동별 세부 반응

1 노래 활동

참여자들은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가사에 깊이 공감하며 정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에서는 희망의 감정을, 「완벽한 사람은 없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에서는 위로와 공감을,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에서는 「그대」를엄마 혹은 딸로 해석하며 관계적 의미를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2 연주 활동

참여자들은 새로운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신기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였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활동에 임하였다.



V. 종합 소감

이번 회기에서는 참여자들이 음악을 매개로 정서적 공감과 자기표현을 경험하였으며, 자신이 선택한 악기를 노래에 맞춰 연주하는 등 기능 수준에 맞춘 참여가 가능하였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예술가가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조화가 높은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산출할 수 있도록 요구한데 있었다고 본다. 또한 세션의 처음과 끝에 아라마 오일로 각성을 하여 지금-여기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한 것과, 주제 노래 선곡 시 내용이 '현실에 기반을 둔 가사'를 전략적으로 선곡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 돌아본
시점들

1 이름 호명의 어려움

첫 회기에서는 참여자 간 이름 파악이 어려워 개인별 호칭에 혼선이 있었다.

개선방안 다음 회기부터는 스티커 명찰을 사전에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원활한 호명과 소통을 돕고자 한다.

2 전체 활동 시간의 부족

병원 측 요구에 따라 50분 이내로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했기 때문에 다소 빠른 진행이 이루어졌다.

개선방안 예술가 및 병원 관계자 협의 결과, 참여자들이 보인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고려하여 향후 회기부터 활동 시간을 15분 연장(총 65분)하기로 결정하였다.

3 악기 연주 시 체계적인 진행

다함께 합주를 하기 전, 악기별 리듬 구성 같은 세부 활동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개선방안 세션 시간이 늘어났으므로 앞으로는 연주 활동 시 참여자들이 직접 리듬을 구성하면서 예술성,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진행할 생각이다.

4 '음악으로 나를 소개하기' 활동의 제한된 발표

시간 제약으로 인해 일부 참여자만 발표를 진행하였다.

개선방안 발표하지 못한 참여자들의 선호곡은 워크시트에 기록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회기에서 함께 감상 및 공유할 예정이다.

5 악기 운반의 어려움

키보드, 받침대, 기타 등 대형 악기 이동 시 인력 부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방안 병원 근무자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다음 회기부터는 장비 운반을 지원 받기로 하였다.



2회차

활동일시 | 2025.10.23(목요일) 14:10~15:15
활동장소 | 마음사랑병원 낮 병원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지난 주보다 음질이 좋은 스피커로 노래를 감상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가사지가 인쇄된 자료를 나누어주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 밑줄을 치도록 안내하였다.

곡의 분위기가 느끼고 다소 무거웠기에 참여자의 반응을 보며 1절까지만 들으려 했으나, 모두가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끝까지 감상하였다.

● 진행자는 정신질환을 앓았으나 현재는 잘 회복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남동생의 이야기를 참여자들에게 나누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보며 한숨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병을 잘 다스리며 사회인으로, 또 가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전하며 참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지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등을 편안히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 참여자들은 돌아가며 자신이 밑줄 친 가사를 읽었고, 진행자는 수용적인 태도로 진심 어린 공감을 주고받았다. 그중 한 젊은 여성 신규 참여자는 울컥하며 읽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다시 시도했을 때에도 목이 메어 진행자가 대신 읽어주었다.

그녀는 “아빠가 나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생각나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그럴 때 아빠의 감정은 아빠의 것이니까, ○○님이 그 뉘까지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고, 이후 그녀의 눈빛이 또렷해지고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또 다른 중년 여성 참여자는 “노래를 들으며 어린 시절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났다.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엄마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참여자들이 주로 밑줄을 그은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

“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

“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뿜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

“
이젠 다른 생각은 마요.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

이를 통해 본 그룹이 ‘나의 고충을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하이의 「한숨」은 참여자들에게 처음 듣는 곡이었지만, 적절한 음량과 좋은 음질, 공감할 수 있는 가사 덕분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며 위로받는 시간이 되었다.

2 향기 염서 만들기

네 종류의 향을 제시하여 향의 느낌을 써보고, 어느 상황에서 이 향을 맡으면 좋을지 스스로 적어보도록 하였다. 시트러스, 플로럴, 허브, 우디향을 각각 ‘굴, 꽃, 풀, 나무’ 그림으로 표현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였다. 참여자들은 다소 들뜬 듯 흥미를 보이며, 비교적 명확하게 향을 맡고 향에 대한 호불호나 떠오르는 기억이나 장소(할머니 집), 자연물 등을 이야기했다.

그림 염서에는 1~2회기에서 부른 노래 가사 중 제일 좋았던 부분을 적거나, 소중한 대상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는데 참여자 각자의 개성과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 다양한 작품이 나왔다. 빼곡하게 가사만 쓴 사람, 그림만 그린 사람, 글씨와 그림을 섞어서 자신만의 언어로 마음을 표현한 사람 등 다채로운 표현이 나와서 좋았다. 그 염서에 향을 뿌리고 비닐에 넣어 가져가도록 하였고, 그 염서를 보며 이 시간을 기억하자고 안내하였다. (왼쪽 그림 파일 참조) 표정이 거의 없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젊은 남성 참여자는 병원 그림 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3 악기 연주 및 소감 나눔

지난 주에 했던 곡(비밀이 화원)과 악기로 간단히 합주를 하였다. 소감 나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스로를 무예가라고 칭하는 중년 남성 참여자가 “음악을 하면 무술이 약해질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음악을 쿵푸 동작으로 승화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었다.

* 돌아본 시점들

- ◆ 참여자가 랜덤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4~6회기가 연속적인 프로그램이라 기존 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음. 참여자가 바뀌어도 송 메이킹(4~5회기)이나 발표회(6회기)를 할 수 있게 활동 구조가 필요함.
- ◆ 전문 용어를 지양하고 쉬운 말로 표현하겠음.
- ◆ 다음주 야외 마당에서 활동 시, 쿵푸 동작도 활용하고 선곡에도 고려하겠음.

3회차

활동일시 | 2025.10.30(목요일) 14:10~15:15
활동장소 | 마음사랑병원 낮병동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나에게 필요한 종류의 아로마 향 글라 롤은 만들기**
* 휴식 / 숙면 / 에너지 업 / 명상 중 택일하여 롤온 제작
* 나뭇잎 모양 종이에 향 문헌 나무 오브제에 붙이기
- 2 **음악에 맞춰 춤추기: 스카프 리듬 동작 그룹 활동(야외)**
* 리듬, 템포에 의해 에너지 수준이 점점 높아지도록 선곡한 4가지 음악에 맞춰 신체 동작 하기
* 자유 동작, 스카프 활용해 움직이기, 한 명씩 돌아가며 춤추기, 짝 지어 스카프 던지고 받기 등, 원을 그리며 뛰기 등
- 3 **휴식 및 이완**
* 누운 자세로 눈을 감고 싱잉볼 및 레인스틱 소리를 듣고 아로마 오일 향을 맡으며 신체 이완

* 돌아본 시점들

- ◆ 야외에서 동그랗게 서서 음악을 통해 신체를 움직일 때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밝은 표정으로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간 또는 예술가와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러웠다. 또한 스카프가 직관적으로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앞으로도 야외에서 책상 없이 동그랗게 앉아 활동하면 상호작용 증진에 좋을 것 같다.
- ◆ 실내에서는 예술가가 준비한 재료로 아로마 및 사운드 테라피 등을 제공하였고 참여자들은 테라피를 '받는' 활동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 향수(롤온)를 받아감으로서 '혼자서도 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이 인상 깊었다.



4회차

활동일시 | 2025.11.13(목요일) 14:10~15:15
활동장소 | 마음사랑병원 낮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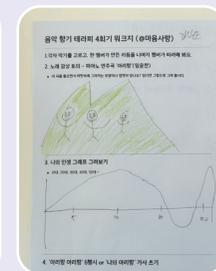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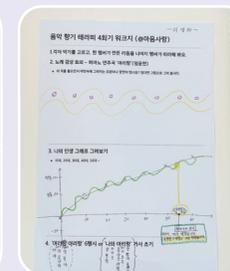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리듬 연주 따라하기**: 'ㄷ'자 책상에 앉아 한 참여자가 만든 리듬을 나머지 참여자들이 보고 똑같이 따라 연주하는 활동을 하였다. 난해한 리듬을 만드는 참여자가 있어서 쉽게 하자고 하면서 모두 따라 하였다.
- 2 **아리랑 듣고 떠오르는 형태 그려보기**: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할 '아리랑'을 감상하고 파도 형태의 곡선을 그리거나 아예 산(고개)을 그린 분들이 계셨다.
- 3 **나의 인생 그래프 그리기**: 10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래프를 그려보며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현재가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한 참가자는 과거의 이야기를 즉 서술하며 현재 자신이 가진 관계적, 심리적인 자원들(낮병원에 입원한 뒤 찾은 안정감, 자녀와의 관계 등) 잘 말해주었다. 또 대학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다는 참여자, 지금까지 늘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할거라는 참여자 등이 있었다.
- 4 **아리랑 6행시 또는 개사하기**: 정해진 글자수 안에 나의 인생 곡선을 표현해 보는 활동이었는데, 글자수에 맞춘 참여자 보다는 자유롭게 적어주시는 참여자가 더 많았다. 아리랑을 일본어로 부르고 싶다는 참여자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키보드 반주를 제공하였다.
- 5 **4/4박자로 바꾸어 합주하기**: 아리랑의 원래 박자인 3/4박자를, 높은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나도록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키보드에 내장된 4/4박의 리듬(드럼 비트)을 들려주자 어깨를 들썩이며 신난다는 반응이었다. 이 비트에 맞추어 각자 선호 악기를 들고 합주를 하였다. 이 때 악기 별로 역할을 나누었고, 순서를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였다.
- 6 **소감 나누기**: 참여자들은 '새로운 악기, 다같이 연주, 활발함, 자유로움' 등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꼈다고 표현 하였다.

* 돌아본 시점들

- ◆ 진행 시 활동을 차질 없이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 몰두되면 활동 후 질문(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리듬을 똑같이 따라해서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을 던지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참여자에게 반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것 같다.
- ◆ 멘토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개수를 줄이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놓고 즉흥적인 시도를 수렴해보면 좋을 것 같다.
- ◆ 자기 인식이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참여자가 있어 1:1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었다.



5회차

활동일시 | 2025.11.20(목요일) 14:00~15:20
활동장소 | 마음사랑병원 낮병동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1 주의 집중과 일체감 형성을 위한 리듬 활동

- * 원을 만들어 서서 노래(창작곡)에 맞춰 예술가와 참여자 랜덤하게 주고 받으며 탬버린의 북면을 치고, 노래로 제안하는 신체 동작을 함께 수행하였음. (예:복을 쳐, 복을 쳐, 즐거웁게, 복을 쳐 / 작게 쳐, 작게 쳐... 엉덩이를 흔들, 어깨를 으쓱, 뒤로 돌아, 옆사람 안마...)
- * 일체감이 생김으로서 다음 그룹활동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느껴졌으며, 이날 처음 온 참여자 1명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됨

2 음악을 감상하며 이미지(심상) 떠올리기

- * 참여자들이 매트 위에 누워서 예술가가 사전에 준비한 3곡의 음악을 감상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이나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함. 음악을 시작하기 전 아로마와 심호흡으로 이완하였으며, 음악 중간 중간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음악이 어떻게 느껴지나요?'와 같이 안내 하였음 (선곡 기준 : 긍정적 정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심상을 떠올리기 좋은 화성, 악기 음색, 텍스처를 가진 가사 없는 기악곡)
- * 참여자 중 5명은 총 8분의 시간 동안 3곡을 눈을 감고 편안한 모습으로 감상을 하였고, 1명은 들쭉거리며 대부분 눈을 뜨고 있었음
- * 감상 후 참여자들에게 '떠오른 장면들을 말해볼 수 있겠냐고 문자, 구체성의 정도는 차이는 있었지만 6명 모두 장면이나 사건을 묘사할 수 있었음. 예술가는 참여자의 말에 경청하며 그 때 감상자가 느낀 정서도 함께 말해볼 수 있도록 유도함.

3 심상 그리기

- * 참여자들은 책상에 앉아 자신이 본 장면 중 가장 기억하고 싶고 의미있는 것을 원 안에 오일 파스텔로 그렸음.
- * 그림을 그리기 주저하는 참여자에게는 그 장면이 주는 느낌을 색채로 연상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음(예: 할머니의 보살핌 -> 따뜻한 느낌 -> 다홍색) 참여자들은 색 뿐 아니라 질감이 부드럽다고 언급하며 오일파스텔에 대해 흥미를 보임.
- * 각 참여자가 그린 그림에 대한 설명

<p>참여자 1</p> <p>어릴 때 형제 자매들과 재잘대며 놀던 기억</p> <p>↓</p> <p>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켜주며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고 계신다.</p>	<p>참여자 2</p> <p>과자 공장에서 일했던 기억</p> <p>↓</p> <p>그 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 뒤에 닥쳤던 더 힘든 일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p>	<p>참여자 3</p> <p>땅벌집을 발로 차서 벌에게 물렸던 상처를 민간 요법으로 치료해 주신 할머니</p> <p>↓</p> <p>사랑과 보호받는 느낌을 느낌</p>
<p>참여자 4</p> <p>어린 시절의 추억</p> <p>↓</p> <p>나의 어린 시절 자화상</p>	<p>참여자 5</p> <p>부모님과 공연을 보러 갔던 기억이 떠오름</p>	<p>참여자 6</p> <p>숲속에서 있는데 새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줌</p>

4 야외 자유 놀이

- * 우리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비밀의 화원'의 부르다가, 가사에 맞게 컨셉 사진을 찍어보며 마당으로 나감. 사진을 찍은 뒤, 예술가가 노래 선물(상처는 별이 되죠(커피소년 곡)을 불러주었다. 또 한 참여자가 노래를 하고 싶다고 자원하여 예술가가 반주를 하였고, 햇빛을 맞으며 지금-여기를 즐겨봄

* 돌아본 시점들

- 1 독립된 공간의 필요성** : 옆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낮병동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분리된 공간, 또는 시간 조율의 필요성)
- 2 1:1로 감상 소감 청취 한계** : 그룹인 관계로 음악이 불러온 심상의 디테일한 부분과 감정을 자세히 듣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1:1로 참여자와 대화로서 공감 또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 3 의의 및 제안** : 그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나'에 초점을 맞추어 음악과 심상(Music & Imagary)이라는 기법을 그룹으로 정신병원에서 시행해본 것이 고무적이다, 한 참여자는 음악의 제목을 물어보며 그림을 그리는 내내 너무 듣기 좋다고 하였다. 예술가는 1~4회차에서 참여자들이 보인 기능 수준과 특성을 바탕으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고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하였으나, 혹시라도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강렬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고려해 너무 자극적인 음악은 피했다. 분명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선곡된 음악이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심리 자원이 될 수 있는 기억'을 되살려 준 것 같아 뿌듯하였다. 또한 멘토링 내용을 상기하며 참여자가 더 반응할 수 있도록 활동 수를 줄이고 여백을 두려고 노력하였다. 야외에서의 자유로운 놀이 시간을 만끽하며 즉흥적인 참여자들의 제안이나 행동을 수용하였을 때, 참여자들의 표정이 매우 행복해 보였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자, 한 참여자는 "낮병동에서 이런 시간을 보낸건 처음이예요, 지금 선물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였음. 마음사랑병원에 전문 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6회차

📅 활동일시 | 2025.11.27(목요일) 14:00~15:20
📍 활동장소 | 마음사랑병원 낮병동

👥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향기 보틀 만들기**: 감사한 대상을 생각하며 오렌지, 라벤더, 페퍼민트 오일 중 2개를 골라 일정한 재료를 넣고 컵 오브제를 완성함
- 2 **그룹에서의 나의 역할과 악기 매칭**
 - *지난 5주 동안 보였던 특성과 장점을 서로 발견해주기
 - *이와 어울리는 역할의 악기를 매칭함



- 3 **2인 1조로 합주 연습**
 - *같은 악기를 맡은 두 명이 협력하여 리듬을 연주
 - *예술가가 미리 편곡해 온 곡(비밀의 화원 + 슈퍼스타 편곡)와 함께 합주를 연습함
- 4 **낮병원 작은 연주회**: 마음드림홀로 이동하여 지난 5주간 활동 모습 엮은 비디오 감상 및 병원 식구들 앞에서 위에서 연습한 곡 노래와 합주 발표함
- 5 **소감 나눔 및 정리**



* 돌아본 시점들

1 병원 측 피드백

- ◆ 본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시고 함께 참여한 병원 관계자(사회복지사)는 오늘 연주회를 통해 “병원 이용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해내는 경험을 하게 준 것이 매우 좋았다”고 함 또한 ‘초반에 1시간 내의 해달라고 제안하였지만, 지켜본 결과 다음에는 2시간을 해도 참여자들에게 무리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함.
- ◆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소감으로는 “(조현병 등 정신병리의) 음성 증상이 강한 회원분들이 무기력하고 정서가 둔마되어 몸을 움직이거나 참여 행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음악이 들어가니 일단 즐겁고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움직이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 것 같다. 수동적인 체험 보다는 스스로 해냈다는 경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낮 병원 회원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다음에 또 진행하면 좋겠다.”고 대답하심.

2 참여자 피드백

정서적·경험적 만족
“즐겁고 편안했다”, “노랫말이 위로가 되었다” 등 전반적인 긍정 반응. 진행자에게 “조울하는 법을 알려줘 감사하다”는 의견 제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호감
다채롭고 재미있었다는 반응.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다”,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 다수.

자기표현 욕구의 증가
자신의 재능을 더 다채로운 리듬으로 펼칠 기회가 있었으면 했다는 의견도 있었음.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프로그램의 기간(6회)에 대한 설문 응답
6명 중 5명이 6회기를 짧다 (매우 짧다 50%, 조금 짧았다 33%)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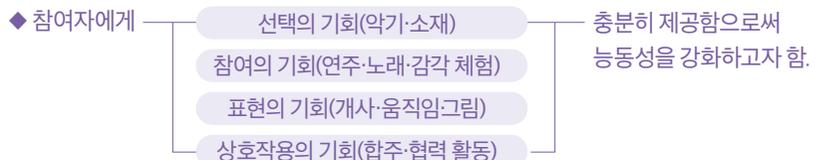


* 이현아 제안 및 의견

1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방향: 참여 중심의 구조 설계와 상호작용

1. 통합 예술 활동의 설계 원칙

◆ 매 회기마다 참여자의 상태와 속도를 고려하여 “감각(향기) - 활성화(음악) - 표현(움직임/그림/개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구성함.



2. 그룹 내 상호작용과 정서 변화

◆ 향기 자극으로 신체·정서를 안정시키고, 음악 활동을 통해 감정(기억) 활성화·몸의 움직임·표현 행동·상호작용이 확장됨.

◆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여자 간 모델링·반응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그룹 내 안전감·라포가 견고하게 형성됨.

2 향후 제안: 2시간 프로그램으로의 확장 가능성

기존 '1시간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낮병원의 우려를 넘어 2시간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는 병원 관계자의 의견처럼, 앞으로는 2시간의 시간 안에 보다 여유로운 진행을 기대한다.

향후 프로그램의 심화 가능성

예술 활동을 보다 여유롭게 경험하고 참여자의 다양한 표현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성 제안과 함께, 참여자의 내면 탐색, 특히 감정의 언어화를 심화적으로 연습한다면 보다 더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 프로그램의 필요성

참여자들 또한 “6회차는 짧았다”는 의견 제시한 만큼 병원 내 정기 운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함



* 정원 제안 및 의견

1 문화예술 수업이 주는 영향

이번 6차활동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특히 지난 5주 동안 관찰했던 각자의 장점과 특성을 악기를 고를 때 서로에게 되짚어주는 과정은, 멘토뿐 아니라 동료 간의 지지 체계를 형성하게 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높였다. 이러한 멘토링은 참가자들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느끼도록 돕고, 음악 활동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2 개별적인 마음 표현을 이끌어내는 작업의 중요성

향기 보틀 만들기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감사한 대상을 떠올리며 선택하는 활동은, 참가자들의 내면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통로가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조차 감각·선택·창작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며, 참여자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는 예술 기반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참가자 개인의 정서적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3 환경을 변화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

평소와 다른 공간인 마음드림홀에서 연주회를 진행한 것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동기 부여를 제공했다. 환경의 변화는 활동의 집중도를 높이고, 일상의 패턴에서 벗어나 특별함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특히 발표 장소가 '무대'의 역할을 하면서 참가자들은 더 진지하게 준비하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는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4 발표하는 시간에서의 개별적 성취감

병원 구성원들 앞에서 노래와 합주를 발표하는 시간은 참가자들에게 큰 성취감을 제공했다. 그동안의 노력과 연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험은 자신감 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참가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였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긍정적 경험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성취감은 이후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



7회차

활동일시 | 2025.11.24(월) 9:50~11:20
활동장소 | 전북 푸른학교 1학년 교실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계획대로 크게 3가지 활동을 진행하였음

- 1 **음악 활동**
'우리들은 북을 쳐' '세상의 많은 소리' 반복 구조의 노래와 북을 매개로 하여 지속적인 주고 받기, 노래의 빈 공간에 표현하고 싶은 가사 넣어 부르며 자기 표현을 하였음. 다양한 타악기 중 마음에 드는 악기를 선택하여 소리를 탐색하고 차례로 소리를 내보았음.
- 2 **향기 활동**
다양한 아로마 오일의 향을 맡아보고, 종이 재료와 콩, 잡곡 등의 모양, 촉감 등을 탐색하였음. 빈 물병에 원하는 재료를 넣어 나만의 셰이커를 만들고 이를 흔들며 노래에 맞춰 '높게, 낮게' 등의 동작을 하였음.
- 3 **미술 활동**
비가 오는 날을 상상하며, 투명한 우산에 셀로판지를 오려 물을 분무기로 뿌려서 붙이면서 나만의 우산을 만들. 불을 끈 교실에서 핸드폰 조명으로 이를 비춰보며 천장에 생기는 무늬를 관찰하였음. 우산을 야외로 가지고 가서 땅 위에서 돌려보거나 날려보기도 하며 놀이 하였음.

* 돌아본 시점들

- ◆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어 악기 소리나 향기 등 감각 자극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던 한 아동이 셀로판지를 우산에 붙이는 활동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며, 다양한 재료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낌.
- ◆ 음악 활동 진행시 아동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노래를 활동의 틀로 제공하고, 기타의 속도나 세기를 변화시켜가며 연주함으로써 아동의 짧은 주의력을 집중시키고 지속적인 참여를 지속시킨 점이 좋았음. 다만 아동이 예술가가 북을 내밀었을 때 손을 내밀에 치는 등 반응을 했을 때 잠시 노래를 멈추더라도 더 큰 칭찬과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 ◆ 각 예술 분야 간 융합이 잘 된 부분과 다소 미진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으나 그럼에도 조화롭게 진행이 잘 되었다고 사료됨. 다만 담임 선생님, 활동 보조 선생님들과 사전에 활동이 공유되어 활동의 의도와 도움을 주실 부분들이 안내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음.



8회차

활동일시 | 2025.11.28.(금) 9:55~11:35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중학교 3학년 교실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문화 예술 향기 활동**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활동에 준비단계인 비닐을 셋팅하는 작업부터 비닐의 부서림 소리와 잡아보는 활동 및 당기는 활동으로 처음 만나는 긴장을 풀도록 하였다. 나만의 향기 보틀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탐색해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활동을 통해 촉각의 편백 면목의 까슬거림과 부드러움, 편백향을 느끼도록 하였다. 다른 기타 계피의 향과, 두 개의 계피를 마주치며 리듬을 만들어보고, 작은 소리 큰소리 청각에 대한 자극을 주었다. 5가지 아로마 오일의 향을 맡아보고, 유리 보틀에 재료를 넣어 나만의 향기보틀을 완성하였다. 마무리 포장과 정리도 해보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 2 **미술 활동**
아이스 브레이크로 색종이로 만들 수 있는 종이접기와 가위질을 통해 여러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였다. 비가 오는 날을 상상하며, 투명한 우산에 셀로판지를 오려 물을 분무기로 뿌려서 붙이면서 나만의 우산을 만들. 낮이고 햇살이 있어 자연광에 이를 비춰보며 우산꼭지를 아래에 두고 빙글빙글 돌려보며 색감을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었고 색감이 주는 에너지를 느끼며 재미있는 활동으로 인지한 활동이었다.

* 돌아본 시점들

원래 계획한 학습의 현장 체험으로 중학교의 수업 진행을 하였는데 중학교 사전 아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여야할지 고민이 된점.



♥ 이현아

활동 기록

1. 나의 실현 과정 정리

- ㉠ 본 사업에 처음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떠올리며 참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참여 기관 네 곳 중 두 곳은 발달장애가 아닌, 만성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이용하는 정신과 병원 또는 복지시설이었다. 첫 기관 미팅 이후, 정신과 낮병원 환자분들의 일상과 내면에 보다 깊이 스며드는 다회기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고 싶었다.
- ㉡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지인이 30대에 조울증이 발병하여 급성기를 지나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가족의 지지와 본인의 치료 의지로 다시 일상과 직장생활을 회복해 가는 모습을 통해, 정신질환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와 신경계의 취약성이 맞물린 상태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절망감, 고립감, 우울감, 죄책감 등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자신 안의 자원과 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예술 활동을 통해 정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던졌던 질문은 "정신과 낮병원 이용자들에게 예술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안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였다. 특히 감정 둔마와 무기력이 두드러지는 참여자들에게, 정서와 관계를 깨울 수 있는 예술적 접근이 가능한지를 고민하였다.
- ㉢ 1회기에서는 참여자들의 반응 속도가 느리고 표정 변화가 제한적인 양상이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준비했던 활동의 난이도와 진행 속도를 유지하기보다는, 현장의 반응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활동의 결과나 완성도보다는, 예측 가능한 구조를 반복하며 '안전하게 참여하는 경험' 자체를 축적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그 안에서 참여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그 연결이 점차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흐름을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 선곡과 활동 설계의 기준도 점차 명확해졌다. 가사는 추상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보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담을 것, 음악적 변화의 폭은 크지 않고 반복적이며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가질 것, 참여자의 연령대를 고려해 익숙한 음악을 포함할 것, 연주 활동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악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되 단순한 리듬을 사용할 것 등과 같은 원칙을 세웠다. 이는 참여자들의 불안을 낮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 또한 2회기에는 참여자 6명 중 3명이 교체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낮병원 이용자들의 특성상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참여자 구성이 매 회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프로그램 설계에서 중요한 변수였다. 이에 연속적인 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창작곡을 완성한다는 처음 구성에서 벗어나야 했다. '감각적 안정 → 정서 활성화 → 표현과 상호작용'이라는 흐름은 있되,



처음 참여한 사람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와 활동으로 수정했다. 이러한 과정은 나에게 매 회기 현장의 반응을 읽고 스스로에게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지며 조정해 가는 실천이자 참여자 중심, 과정 중심 예술 교육의 적용이었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 본 프로그램은 음악과 향기를 활용한 통합 예술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신과 낮병원 이용자와 6회기에 걸쳐 소그룹 형태로 진행되었다. 1-2회기에서는 노래 감상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가사 중 인상 깊은 문장에 밑줄을 긋고, 해당 표현이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과거 경험, 미안함이나 위로와 같은 정서가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으며, 일부 참여자는 감정을 조절하며 침묵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무언의 반응 역시 하나의 표현이며, 감정이 머무르는 여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 ㉥ 3회기에는 공간 구조를 변화시켜 책상을 치우고 원형으로 서는 활동을 시도했다. 단순한 환경 변화만으로도 참여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야외에서 스카프와 타악기를 활용한 전신 활동에서는 리듬을 주고받는 행동과 시선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후 명상 사운드와 향기를 활용한 이완 시간에서는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정서적 안정이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진행자가 많은 활동을 밀도있게 진행하는 것 보다, 집단의 에너지의 오르내림이나 역동을 만들어내는 설계가 더 중요함을 느꼈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 4-5회기에는 기악곡 감상과 심상 표현 활동(music & imagery)을 통해,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언어로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과거의 기억, 어릴 적 중요한 관계 대상, 자연 풍경 등 비교적 구체적인 심상을 제시했다. 지난 4주간 현실 검증력과 자기표현 능력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기에 도전한 활동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이 과정은 나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불필요한 자극이 될까하는 우려 때문에 망설였던 이 활동을, 앞선 회기에서 쌓인 신뢰와 관찰을 근거로 선택했을 때, 예술은 내면을 정돈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음악치료사로서 섬세하게 선곡을 배치하고, 틈틈이 1:1로 떠오른 심상이 주는 개인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나누었던 대화는 잊지 못할 깊은 교감의 순간이었다.
- ㉡ 마지막 6회기에서는 다른 낯병원 이용자들을 초대해 소규모 연주회를 진행했다. 참여자 각자의 강점에 맞추어 악기 역할을 분담하고, 2인 1조로 협주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연습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했으며 수동적인 태도가 능동적 참여로 전환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는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미련을 가졌던 나에게 ‘무대를 해냈다는 경험 자체’가 이 분들께 주는 큰 힘을 다시 깨닫게 한 순간이었다.
- ㉢ 지난 두 달은 이론을 적용하는 실천 과정이자 동시에 매 회기 새로운 결정을 요구받는 창작의 연속이었다. 또 예술교육가로서 내가 어떤 태도로 현장에서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치료사로서 치료적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재료와 활동을 시도하며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매개하는 촉진자의 위치에 서면서, 나는 점차 소통과 연결의 장을 설계하는 예술교육가로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었다.

- ㉣ 본 사업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공간과 참여자, 그리고 타 예술분야와 협업하며 감각·공간·재료를 통합해 ‘관계의 장’을 설계하는 예술교육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보았다. 즉, 치료사나 강사의 역할 보다는 참여자와 공간, 감각 자극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관찰하며 그때그때 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 ㉤ 책상을 치우고 원형으로 서는 공간 구성, 반복적인 향을 통한 리추얼 형성, 단순하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타악기 활동 구성은 참여자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 장치로 작동했다. 또한 ‘음악과 심상’ 활동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기억과 정체성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고, “보물을 되찾은 느낌”, “잊고 있던 장면이 떠올랐다”는 표현을 통해 예술이 내면 깊은 층위까지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점은, 정신과 낯병원에서도 예술 활동은 충분히 안전하고 깊이 있게 작동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기법이나 결과가 아니라 리듬, 반복, 예측 가능성, 그리고 역할을 부여받는 경험이라는 사실이었다. 자극의 강도를 높였을 때보다 오히려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해질 때, 참여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표현하는 순간들이 나타났다. 또한 음악과 향기를 포함한 감각적 요소나 기능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통합될 때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반응이 이어진다는 점도 체감했다. 이는 향후 통합 예술 활동을 설계할 때, 장르의 결합 자체보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감각이 필요한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 ㉥ 향후에는 정신과 병원이나 기관 같이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한 현장에서 소규모 통합 예술 프로그램을 더 구조화하고 장기로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참여자의 선택권과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음악과 움직임이 융합된 프로그램이나 송라이팅(song writing) 같이 참여자가 자기 서사를 직접 구성하는 활동을 시도해 보고 싶다. 낯병원 마지막 참여자 설문에서 “타고난 리듬감을 더 발휘하고 싶었다”라는 응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자의 개별 욕구와 표현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장기적 프로그램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꾸준히 예술가, 치료사, 현장 실무자와의 스터디를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엮어 지속가능한 장애 예술교육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자리에 동참하고자 한다.



정원

활동 기록



1. 나의 실천 과정 정리

☞ 본 사업에 참여하며 처음 품었던 질문은 “장애 예술교육에서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였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표현을 이끌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예술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실천 과정 속에서 질문은 점차 바뀌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도 예술일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이 질문들은 정답을 찾기보다는, 매 회기 참여자들의 반응과 선택을 세심히 관찰하는 방식으로 마주했다. 설명을 줄이고, 선택지를 열어두며, 해석보다 기록을 택하는 태도로 실천을 이어갔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이번 활동에서는 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향기, 움직임, 이완을 중심으로 한 감각 기반 예술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향기를 직접 고르고, 몸의 움직임을 자신의 속도로 탐색했으며, 말보다 감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수업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보다, 각자의 감각이 드러나는 과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중요한 개인적 변화를 경험했다.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역할 의식에서 벗어나,

함께 머물고 지켜보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한 참여자가 “향기를 맡으면 내가 조금 괜찮아져요”라고 적어준 문장은, 예술의 역할이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를 건디게 하는 작은 숨일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했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본 사업을 통해 나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실천가’가 되어보는 경험을 했다.

기획자나 교육자의 위치를 내려놓고, 참여자 각자의 리듬과 선택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예술은 누군가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감각과 결을 드러나게 하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

앞으로는 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더욱 느슨하고 지속 가능한 감각 예술 활동을 시도 해보고 싶다.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괜찮아질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각자의 취향과 속도가 존중되는 예술 환경을 다양한 현장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이번 경험은 그러한 실천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4. 아쉬운 점

☞ 시간적인 아쉬움과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예술 활동의 재료를 한정 지어 써야한다는 아쉬움이 있음. 제도 개선 및 협업에 대한 방향 제시도 좀 더 구체적이고 각자의 예술 분야를 경험하는 계기 및 장애인들에게 어떤 활동들이 감각을 깨우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1회차

활동일시 | 2025.10.13.(월)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동그랗게 서로를 볼 수 있는 공간 조성

① 프로그램 안내 및 자기소개

- * 예술가 및 참여자 자기소개
- * 내가 좋아하는 것 나누기를 통한 위밍업

② 악기 찾기

- * 주변에 악기가 될만한 물건을 찾아보기
- * 예술가들이 준비한 소악기들을 활용하기

③ 애창곡 부르기 및 감상 나누기

- * 돌아가며 자신이 즐겨 부르는 노래 혹은 자주 듣는 음악 선택하여 함께 나누기, 소품으로 자신을 꾸미고 발표. 연주하던 물건은 옆사람에게 전달.
- * 공간을 행진하며 움직임과 악기연주로 애창곡 동참하기

* 돌아본
시점들

- ◆ 자신을 꾸밀 수 있는 재료를 보다 다양하게 준비
- ◆ 다양한 소악기 준비, 부는 악기 제외
- ◆ 노래 가사(PPT), 스피커(음향 사전확인) 준비
- ◆ 자리배치(테이블 없이 의자만 원형 배치)
- ◆ 쉬는 시간 ◆ 참여 독려
- ◆ 불안 완화, 휴식 장치 공간 내 마련



2회차

활동일시 | 2025.10.20(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9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① 몸풀기

② 자신의 애창곡과 함께 동작 만들기

(플레이리스트 제작)애창곡 수정 및 업데이트

③ '우주'를 연상하는 음악과 함께 우주에서의 '나'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기

* 모두 멈춘 상태에서 한명의 유영으로 시작, 다른 사람을 터치하면 함께 움직이며 퍼져 나가기

④ 마스킹테이프로 무대를 설정하기

⑤ 공동의 안무 창작하기

⑥ 무대 정리

* 돌아본
시점들

- ◆ 즉흥움직임의 몰입도와 표현력이 높은 2명을 선발하여 이후 행사 때 퍼포머로 짧막하게 공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
- ◆ 공동의 안무 묶기
- ◆ 다음 회차에서는 편집된 최종 음원으로 활동하기
- ◆ 쉬는 시간 도입
- ◆ 활동 종류 단순화 및 프로그램 흐름 반영 필요
- ◆ 오디오 시스템 개선



3회차

활동일시 | 2025.10.27(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20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위명업
- 2 애창곡 메들리 랜덤으로 부르며 움직임과 연결하기 (피피티 활용)
*마디 길이 조절, 곡 추가 및 순서 재배열
- 3 “나는 착하고 약이 없습니다” 슬로건을 즉흥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수영하듯이, 다양한 바다 생물이 되어
- 4 단체 후렴구 만들고 애창곡 메들리에 넣어 함께 부르기

* 돌아본 시점들

- ◆ 애창곡 메들리 비트 (제작 음원) 확정 여부
- ◆ 애창곡 및 원곡 음원 활용시 경우 별 저작권 활용 가능 여부
- ◆ 우주 테마 음원 확정
- ◆ 피피티 업데이트
- ◆ ‘돔’ 재료 찾기 (다음 수업 및 전시물)
- ◆ 안무 확정, 공통 안무 기록 및 제작



4회차

활동일시 | 2025.11.3.(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8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지금 내 마음의 모양을 세 가지 색깔의 종이로 표현하기
*찢고 구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 마음의 모양을 탐색하고 가장 내 마음과 닮아있는 종이 세 조각 고르기
- 2 나를 가로막는 것
*나를 방해하는 것, 가로막는 것, 더 쉬운 표현으로는 나를 힘들게, 불편하게 하는 것을 떠올리고 이를 내 마음과 닮아있는 종이에 적기
*반짝이, 아크릴 마커 등 여러색의 펜으로 표현.
*비밀로 붙이고 싶은 것은 비밀 펜으로 적기
- 3 돔에 붙이기
*한 명씩 돔에 붙이며 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 발표하고 붙이기
- 4 별자리 만들기
*나를 가로막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표현하며 돔에 구멍을 뚫기
*내부에 조명을 넣어 구멍을 통한 빛 표현
*별자리처럼 표현된 돔의 빛을 바라보기
- 5 애창곡 동작 만들기
*돔의 빛과 함께 각자 자신의 애창곡에 해당하는 동작을 만들기
*동작 기록

* 돌아본 시점들

- ◆ 기록된 자신의 동작을 잊지 않도록 동작 컷을 가사 PPT에 이미지로 삽입
- ◆ 활용 소품 종류 및 개수 확인
- ◆ 동선과 안무 확정
- ◆ 순서와 역할 배정
- ◆ 피피티와 음악 재생 방법 모색



5회차

활동일시 | 2025.11.10(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완주군가족교육문화원 다목적강당

참석인원 | 20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기관 외 활동과 매드 프라이드 퍼레이드 행사 피날레 퍼포먼스 연습을 위해 강당에서 단체 리허설 진행. 사전 회의를 통해 퍼포먼스 구성과 퍼레이드 경로, 재료 확정, 구매

- 넓은 공간과 행사 당일과 유사 시스템 활용 (음향 & 영상)
- 퍼포먼스 소품 (장갑, 비누장미, 악기, 장식) 확정 및 배분 후 활동 진행, 리허설 종료 후 네임택 작성과 행사 당일용 준비 완료
- **웜업**: 둥글게 모여 앉아 좋아하는 것 이야기 하기
- **세팅**: 음원, 마이크, 보면대와 악보,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실시간 컨트롤 및 연주
- **큐사인 & 동선 확정**: 퍼레이드 -> 시작 위치 -> 대형 1 -> 대형 2 -> 퇴장
- 입장 & 관객 참여 퍼포먼스 구성, 도우미 섭외 (관객 역할)
- **퍼포먼스 대사**: 5인, 부분 및 전체 리허설
- **애창곡 메들리 연습**: 안무와 가사 피피티 제작, 순서대로 연습
- 전체 리허설

* 돌아본 시점들

많은 활동 내용으로 휴식 환경 미비, 현장 리허설과 당일 리허설 진행 예정



6회차

활동일시 | 2025.11.21(금요일) 10:00~11:3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1학년 교실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사전 준비: 교실 전체 바다속 공간 조성 (푸른 반짝이 발, 매트, 푸른 천, 이불, 방수포, 튜브, 바닷소리)

- 1 **이름표 부착 및 교실 입장**
 * 좋아하는 것 말하며 자기소개 (선생님과 1학년 친구들) 연아, 시아, 준호, 준서, 지완
- 2 **몸풀기 및 무궁화 꽃이**
 * 동물 따라하기, 얼음땀, 스티커 붙이기
 * 바다의 보물 - 마법봉: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마법봉 놀이
- 🌿 (전환 및 휴식)
- 3 **어두운 환경 조성, 바닥에 누워야 떠날 수 있는 소리 여행**
 천장에는 소리에 반응하는 실시간 인터랙티브 이미지 프로젝션 학급 선생님들도 다같이 참여
 * 튜브에 누워서 천장 이미지 보며 소리내고 반응 보기
 * 우주 소리 감상, 이완, 상상, 여행할 준비
 * 기차역으로 여행: 소리 듣고 장소 맞추기, 소리 따라하기
 * 숲으로 여행: 소리 듣고 장소 맞추기, 동물 맞추기 (코끼리, 사자, 늑대, 부엉이, 까마귀 등), 소리 따라하기
 * 빛속으로 여행: 소리 듣고 맞추기, 레인스틱 움직여보기, 빛소리 따라하기
 * 바닷속으로 여행: 소리 듣고 맞추기, 이불(바다) 밑으로 들어가기, 소리 따라하기 (돌고래, 바다)
- !! **공간 속 움직임**
 * 여러 공간 속에서 다양한 동물이 되어 움직임으로 표현
 * 참여자들이 직접 모방 대상을 제안하고 다같이 표현
 * LED 스틱을 움직이며 빛으로 표현

* 돌아본 시점들

높은 에너지와 활기로, 소리 여행 후 활동 전환보다는 움직임을 통한 부드러운 확장으로 변화. 상상력과 신체를 통한 신나는 놀이시간. 집중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연결 방법과 환경 변화가 필요함.



♡ 장수진

활동 기록



1. 나의 실현 과정 정리

☞ 2025 사이:예술학교는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 표현'을 시작점으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고유 표현, 여러 다른 표현의 공존과 소통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실행하지 못한 프로그램 계획과 방문하지 못한 기관이 남아 아쉽지만 덕분에 귀한 인연과 경험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배움을 나누어 주신 참여 선생님들과 기관 담당자님들 멘토님들, 완주문화재단과 사이:예술학교 감사합니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사이:예술학교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한 발전 과제를 가지고 더욱 다양하고 밀도 있는 활동을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공통의 주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두를 응원합니다.



1회차

활동일시 | 2025.10.14(화요일) 14:00~16:00
 활동장소 | 예수재활원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자기소개
- 2 음악으로 본프로그램 전 간단한 율동으로 분위기를 즐겁게 함
- 3 좋아하는 도형을 그리고 좋아하는 색을 칠해봄
- 4 아크릴 물감과 모델링 페이스트를 캔버스에 섞는 법을 시연하고 작품을 자유롭게 완성해봄
- 5 마무리 소감 이야기하면서 좋아하는 것 파악
 *bts 정국, 트트, 아이브 원영, 돌리, 자두, 엘사 등 애니메이션을 좋아함

* 돌아본
시점들

- ◆ 물감이 튀거나 옷, 손에 묻는 것을 계속 닦는 부분 일회용 물티슈보다 작은 수건 준비- 빔프로젝터, 컴퓨터, 이젤 준비- 쉬는 시간 간식 필요- 미술 작업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 ◆ 재활원내 미술시간을 통해 구상수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상보다는 다양한 재료를 통해 오감이 자극되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재미있는 미술놀이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예정.
- ◆ 큰물통, 큰비닐, 앞치마, 비닐장갑, 액자, 이름표, 테이프, 큰종이, 물티슈, 이젤 등 미술재료 외에 추가되는 물품 등 계획에 따른 준비물이 많고 공간을 더럽히는 것이 우려됨. 좀 물감이 튀어도 되고 기본적으로 물감과 물을 사용하는 미술 작업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2회차

활동일시 | 2025.10.21(화요일) 14:00~16:00
 활동장소 |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1 오프닝 / 즐거운 분위기 만들기
 *활동 : 박수치기와 간단한 율동으로 몸을 풀며 수업 시작.
 *방법 : 리듬에 맞춰 교사와 함께 손뼉치기, 몸 움직이기 등 신체 활동.
- 2 본 활동 1 / 수채크레파스로 그리기
 *노트나 도화지에 내가 좋아하는 도형을 자유롭게 그리기.
 *수채크레파스로 도형을 채색하며 다양한 색감 탐색.
 *원, 삼각형, 네모 등 기본 도형을 충분히 여러 개 그려보며 표현 확장.
- 3 본 활동 2 / 손바닥 그리기
 *자신의 손바닥을 종이에 대고 윤곽선을 그림.
 *손바닥 안쪽을 다양한 색으로 채색하거나 패턴을 표현.
- 4 본 활동 3 / 점찍기 놀이
 *손가락을 이용해 물감으로 종이에 점찍기.
 *여러 색상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점을 찍은 후,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며 새로운 형태 만들기.
- 5 본 활동 4 / 공동 작품 만들기
 *참가자들이 그린 그림을 바닥에 모두 펼쳐놓기.
 *위에 **투명 비닐(랩 또는 큰 비닐 시트)**을 덮기.
 *비닐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림. *뽁뽁이 비닐에 물감을 묻혀 찍어보며 나무나 꽃 표현.
 *그 위에 물감을 뿌리고 아트나이프로 긁어 표현.

* 돌아본
시점들

“즐겁게 몸을 움직이며 시작하고, 손과 색,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해 오감으로 표현하는 미술 놀이 수업” 2회차에 새로운 참가자가 3명 참석으로 처음에 장애인지도도가 파악이 안되었으나 마지막 활동 소감을 통해 아이들같이 장난을 했으며 그림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표현으로 이해함. 점을 찍는 과정부터 매우 깔끔한 성격이신 참가자이고 70대 성인 남자 지적장애 참가자분과 다함께 어울릴만한 활동 내용을 게임이나 오감을 활용한 내용으로 활동내용을 구상할 예정임.



3회차

활동일시 | 2025.10.23(목요일) 14:00~16:00
활동장소 | 예술공간1동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오프닝 / 즐겁게 몸 풀기**
 - 활동 : 박수치기와 간단한 율동으로 몸을 풀며 수업 시작.
 - 목적 : 긴장 완화, 주의집중 유도, 긍정적 분위기 형성.
 - 방법 : 음악에 맞춰 손뼉치기, 손 흔들기, 어깨 돌리기 등 간단한 동작으로 진행.
- 본 활동 1 / 촉각 상자 탐색하기**
 - 활동 준비 :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한 종이상자(‘감각상자’) 안에나뭇잎, 깨, 강아지풀, 도토리 등 다양한 자연 재료를 넣어둔다.
 - 진행 방법 : 1. 참가자가 눈을 감거나 가리고 손을 상자 안에 넣어 재료를 만져본다.
2. 어떤 감촉인지 느껴보고 말로 표현해본다.
3. 마음에 드는 촉감이 있으면 상자에서 꺼낸다.
- 본 활동 2 / 오감으로 자연 느끼기**
 - 활동 :
 - 상자에서 꺼낸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모양, 냄새, 질감을 탐색.
 - **깨대(깨 줄기)**를 꺼내 직접 깨를 털어보며 ‘사그락’ 소리 듣기.
 - 고소한 냄새를 맡아보고, 안전하게 깨를 직접 맛보기.
- 본 활동 3 / 감정 표현 활동**
 - 활동 :
 - 교사가 표정 스티커가 붙은 카드를 나누어준다.
 - 참가자는 그중에서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 또는 ‘가장 마음에 드는 표정’을 선택하고 카드에 10개 붙이기, 카드섞고 내표정카드 찾기, 카드세우고 붙기. 카드 높이쌓기
- 마무리 :** *오늘의 활동을 함께 돌아보며 어떤 감각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이야기 나눔.
*교사가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후 밝은 음악과 함께 마무리 인사.

* 돌아본 시점들

- ◆ 게임 후 작은 간식을 선물로 주었을 때 동기부여가 되었다
- ◆ 재료에 기준이 없이 자유롭게 쓰면 좋겠다.
- ◆ 음식 재료에는 너무 예쁜 색감이 많다.



4회차

활동일시 | 2025.11.17(월요일) 14:00~16:00
활동장소 | 예술공간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오늘 기분이나 어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안부묻기
- 음악으로 본프로그램 전 간단한 율동으로 분위기를 즐겁게 함
- 레크리에이션 진행 : 오늘 파란옷 입은사람, 제일예쁜사람, 밥 많이 먹는 사람, 머리가 가장 짧은 사람, 등 서로를 알아보고 교류할 수 있는 질문으로 포스트 붙이기. 내얼굴에 붙이고 볼에 바람을 넣거나 얼굴을 많이 움직이면서 떼어내기
- 좋아하는 캐릭터를 고르고 비닐우산에 대고 그리기
- 계획과 달리 레크리에이션을 재미있게 하면서 셀로판지로 활동하는 내용은 다음시간으로 미뤄짐

* 돌아본 시점들

- ◆ 비닐우산에 대고 그리는 것은 참가자가 어려워하지만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서 해보도록 옆에서 리액션 해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가자가 흥미를 잃지 않고 하는 것 같다.
- ◆ 게임을 통해 서로를 보거나 교류하거나 이기려고 하거나 동작이나 표현이 좀 더 적극적이어서 게임을 더 많이 하려고 함
- ◆ 게임을 생각하면서 색이나 미술 활동을 좀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서치 필요
- ◆ 게임을 통해서 하는 표현을 통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어 미술활동할때보다 현재 참가자에게는 더 맞는 듯함. 참가자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연구.



5회차

📅 **활동일시** | 2025.11.20.(목요일) 14:00~16:00
📍 **활동장소** | 예술공간

👥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오늘 기분이나 어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안부묻기
- 음악으로 본프로그램 전 간단한 율동으로 분위기를 즐겁게 함
- **레크리에이션 진행**: 가위바위보로 팀을 정하고 좋아하는 색종이 색을 고르기, 종이공을 만들고 색종이 영역에 던져서 넣기. 색종이 영역은 골이 들어가기 좋은 위치나 모양으로 변경 가능, 한정된 종이는 잘게 잘라서 종이공을 많이 만들 수 있음.
- **비닐우산에 셀로판지를 붙이고 밖으로 나가 햇빛에 비추어보는 활동진행**

* 돌아본 시점들

- ◆ 집에서 셀로판지를 오리고 물로 붙이는 활동을 테스트했지만 실전에서는 참가자들이 가위질이 서둘러 어려움. 바람이 많이 부는 날로 셀로판지가 잘 떨어짐. 하지만 참가자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함. 셀로판지 색이 약하고 햇빛도 강하지 않아서 바닥에 색이 비치는 관찰 활동은 생각대로 되지 않음.
- ◆ 그림자 놀이, 플래시를 이용하여 실내에서 하는 활동을 생각해봄
- ◆ 보조선생님과 함께 종이공 만들어 던지기를 재미있게 함. 모두가 함께 어울려 게임하는 것이 좋았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하는 이런 게임을 기획해봐야겠음



6회차

📅 **활동일시** | 2025.11.24.(월요일) 10:00~12:00
📍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 **참석인원** | 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기타와 노래로 참가자의 반응과 분위기를 즐겁게 시작
-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악기를 소개하며 참가자가 직접 만지고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돌아가며 노래와 진행
- **향기 웨이커 만들기** 피티병에 콩, 팥, 잡곡을 넣고 향기를 넣어서 흔들어봄
- **향기웨이커에 내가 좋아하는 색사인펜으로 표정을 그려봄**
- **비닐우산에 셀로판지를 붙이고 밖으로 나가서 햇빛에 비추는 관찰 활동**

* 돌아본 시점들

- ◆ 새로운 향에 놀라거나 싫어하는 향도 있어서 손에 뿌려서 직접 맡아보는 것보다 보조 선생님 손에 조금 뿌려서 은은하게 맡게 하는 부분 필요
- ◆ 셀로판지를 자르는 어려움으로 선생님이 도와주지만 미끄러워 잘 안잘라짐. 자르는 활동 놀이보다 셀로판지를 햇빛에 대고 볼 수 있는 관찰놀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있음.



7회차

활동일시 | 2025.11.27(목요일)14:00~16:00
활동장소 | 예술공간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어제의 안부를 물으며 인사
- 색종이 접기와 꽃모양 오리기와 내맘대로 붙이기

* 돌아본 시점들

- ◆ 보조선생님이 2~3명 항상 오시는 것으로 알고 준비한 프로그램인데 당일 1명만 오셔서 참가자 5명중 2명은 개인 밀착케어가 필요한 상황으로 색종이 접기와 자르기가 안되는 참가자는 접기만 대체함.
- ◆ 3명의 참가자는 종이접기와 자르기가 잘되고 1명은 접기는 되지만 자르는 것이 어려움. 각자 잘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으나 보조선생님이 부족한 관계로 아쉬움이 남음
- ◆ 미리 접은 종이를 많이 만들어가는 준비성 필요
- ◆ 남자 참가자2명은 다양하게 자르기까지 발전모습을 보이며 접은 색종이를 펴서 꽃모양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며 계속 시도함
- ◆ 시간을 천천히 갖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함을 다시 느낌

8회차

활동일시 | 2025.11.28(금요일)10:00~12:00
활동장소 | 전복푸른학교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포퓰리 디퓨저 만들기
시나몬 스틱, 말린 오렌지, 히말라야 소금, 돌, 허브, 에센셜 오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만들
- 이런 건조 재료를 그릇이나 유리컵에 담고 향을 더하는 방식
- 비닐우산에 셀로판지를 붙이고 밖으로 나가서 햇빛에 비추는 관찰 활동

* 돌아본 시점들

- ◆ 창문이 많았다면 참가자 모두가 각자 창문에 셀로판지 꽃을 붙이고 햇빛에 비치는 것을 관찰하고 우산에도 붙여서 바깥으로 나가는 활동까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함. 날이 춥고 학교 공사 관계로 아쉬움
- ◆ 종이접기, 자르기 활동을 재밌어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종이꽃 접고 자르기 활동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을 계획하고 싶음.
- ◆ 디퓨저를 만들면서 향기를 맡고 향의 느낌을 자연, 사물, 추억, 기억 등으로 떠올리게 하는 활동으로 말로 느낌 나누거나 글로 써보고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연결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





♡ 조운성

활동 기록



1. 나의 실천 과정 정리

첫 질문

☞ 장애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드라마에서 본 장애 예술가 정은혜 작가의 작품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보고,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겪는 창작의 어려움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펼쳐지는 예술적 표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손가락 부상으로 미술 작업에 불편을 겪으면서, 장애를 가진 작가들의 창작 과정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예술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새롭게 떠오른 질문들

☞ 실천 과정 중, 장애를 가진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업 방식은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아동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예술 교육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탐색과 대응 방식

☞ 이 질문들을 탐색하기 위해, 저는 장애예술교육에 대한 서치하고 다양한 자료를 시도하고 수업을 계획하며 수업을 통해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 수업을 요청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예술교육에 대한 제 자신의 불안감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수업 방식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표현을 중심으로 한 감각적이고 유연한 수업 방식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감각적인 기법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예술적 표현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예술 활동의 내용과 방식

☞ 본 사업을 통해, 저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각예술 기반의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종이, 천, 캔버스 등을 활용하여 물감을 뿌리거나 바르고, 자유롭게 드로잉을 하며, 다양한 기법을 통해 예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놀이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물감을 번지게 하거나 찍는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재료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평면적인 미술 수업뿐 아니라,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표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개인적 성찰과 성장

☞ 이 과정에서 저는 자신감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장애 아동 및 성인들이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 중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장려하면서, 참가자들의 고정관념 없는 예술을 경험했습니다. 결과물보다 참가자들이 수업을 통해 얻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되어보기’의 경험

☞ 이번 사업을 통해 저는 예술교육자로서 장애 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저는 예술을 매개로 한 소통의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 수업을 통해 참가자들이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가며, 서로의 작품을 나누는 장면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점

☞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참가자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자아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특성에 맞춘 유연한 수업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향후 방향과 계획

☞ 앞으로는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참가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해, 아이들이 더욱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소그룹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싶고 내가 끌고가기보다 다양한 재료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이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하여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예술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1회차

활동일시 | 2025.10.13.(월) 10:3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인사 나누기, 돌아가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씩을 소개하기, 대부분 음식을 소개하셨음.
- 각자의 애창곡을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밝히고 테이블에 준비된 파티용품과 보자기, 손악기 등을 활용하자고 공지
- 악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오자고 하였고 스테인레스 컵 두 개로 부딪혀 소리내는 악기, 바둑알들이 담긴 통을 흔들어서 소리나는 악기 등이 등장함. 안내자들이 준비한 소악기들과 프로그램실에 있었던 탬버린 등을 활용
- 돌아가며 자신의 애창곡을 불러보자고 했는데, 가사를 잘 모르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분이 꽤 있었음. 애창곡 소개하는 사람은 인형마이크 쥐기를 하였고 적극적으로 또는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담아 노래하는 분도 있었음
- 테이블을 중심으로 원으로 돌면서 (준비된 천으로 망토, 스카프 두르도록 유도) 노래부르지 않은 분들의 애창곡을 음원으로 플레이하고 악기 흔들며 행진
- 자신의 애창곡에 생각나는 안무를 준비해 오자고 함.

* 돌아본
시점들

- ◆ 쉬는 시간이 없었음. 다음 회차에는 쉬는 시간 반영
- ◆ 음원 플레이가 원활하지 못함. 오디오 점검의 필요성.
- ◆ 자리를 이탈 하는 분이 몇분 계셨음. 사전에 공지받은 회원정보 중 프로그램 중 이동이 잦은 분들 포함.
- ◆ 휠체어 이용자 한 분이 중간에 불안해 보이셨는데, 다음 회차 때 불안 완화용 촉각 인형을 준비할 예정.
- ◆ 다리를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서서 하는 활동에는 휴식의자를 몇 개 배치 필요성.



2회차

활동일시 | 2025.10.20(월요일) 10:0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7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는 시간임을 공지하기. 매드프라이드 때 우리가 할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시간임을 알리고 자신의 애창곡에 동작들을 시도해볼 것이라고 알림.
- 준비운동, 매드프라이드의 주제가 '우주'이니 우주느낌 나는 음원을 들으며 준비운동을 함.
- 애창곡을 플레이하며 노래에 익숙해지는 시간. 이전 시간처럼 원을 그리며 행진하고 소악기들을 흔드는 방식으로.
- 몸을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대로 움직여보는 시간: 우주 느낌이 나는 느린 템포의 음원을 플레이 하고 우주에서 유평하는 느낌의 느린 동작으로 내(최민경)가 먼저 시작하여 안내를 하고, 한 사람을 터치하면 멈춰 있던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우주를 유평하듯 천천히 움직임. 얼음물 놀이처럼 터치를 통해 움직임을 시작. 회원분들이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데에 집중할 모습을 만날 수 있었음. 순자 님이 특히 자신의 느낌에 오롯이 집중해 표현하셨음.
- 쉬는 시간 5분 가짐. 쉬는 시간동안 강사들은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고 한분 한분 동작들을 만드는 것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고 애창곡을 플레이 하는 동안 회원분들이 춤을 추시면 그 동작들을 모아서 흑 안무 1개를 완성해보자고 함.
- 바닥에 종이 테이프로 중앙에 큰 원 형태의 무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애창곡이 나올 때 무대로 나와 몸을 움직여 보는 방식. 이신 님이 적극적으로 느낌대로 날개짓의 춤을 추셨음.

* 돌아본
시점들

- ◆ 가사가 보이는 유튜브를 플레이 해서 음악을 쓰고자 했는데,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연결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회원분들이 기다리게 되었음. 1회차 이후 오디오를 점검하자고 했는데 2회차 때도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됨. 30분 먼저 와서 그 날 할 것들을 공유하는데, 오디오부터 점검하자고 의견 모음.
- ◆ 노래 가사 보기를 위해서 빔프로젝터에 연결한 스피커의 출력이 낮아서 음악 소리가 작았음. 음악 소리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회원분들의 집중도에 영향을 미침.



3회차

활동일시 | 2025.10.27(월요일) 10:0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몸 풀기:** 장수진 강사가 과거에 만든 우주느낌 사운드를 플레이하고 지난 회차에 회원분들이 자신의 애창곡에서 한 춤 동작들을 다 같이 해보았다. 그 때는 보여주지 않은 회원분들(말뚝)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동작을 보여주시기도.
- **음악에 익숙해지기:** 장수진 님이 비트를 만들어 왔고, 그 비트 위에서 자신의 애창곡을 불러보기. ppt가 넘어갈 때 이름과 애창곡 가사 구절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어가기.
- 쉬는 시간(강사들은 ppt 속 가사의 길이와 내용을 수정함)
- **마음(문장)에서 출발한 움직임을 시도:** 한사랑 기관 방문 때 들은 내용이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장을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한 회원 분이 '나는 마음이 착하고 악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쓰셨고 그 문장이 매드프라이드의 슬로건이 되었다고. 그 문장을 시범으로 앞서 최민경(나)이 움직임으로 표현함(중간에 우주 음원 들어오고 계속 플레이) 그 후 이것 나도 할 수 있겠다 혹은 하고 싶은 분 있냐고 했을 때, 승관 님과 정진 님이 나오셨고 셋이 손을 맞잡고 즉흥 움직임을 만들. 이후 말뚝님과 동윤 님이 나와서 한 줄로 손을 잡고 파도를 만들자 새나 물고기로 참여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셨음.
- 쉬는 시간(강사들 사이에서 매드프라이드 퍼포먼스 애창곡리스트를 원곡에서 잘라와 편집해서 음원을 만든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비트를 만들고 원곡없이 회원님들의 목소리만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 좀 더 의논해 보기로)
- 비트 플레이하고 애창곡 돌아가며 하는 활동(마이크 없이)

* 돌아본 시점들

사전 회의를 충분히 하지 못 해 활동시간이 어수선해지는 면이 있었음. 나 또한 공유할 부분을 주 중에 빨리 정리해서 수업날 전에 공유가 필요했었음. 지난 회차 때 회원분들의 움직임들 속에서 몇 가지 동작을 조합해서 흑 안무를 만들고 모든 곡에 적용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막상 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하려니 의구심이 들었음. 고민하다가 회원분들의 개별성을 좀 더 만나는 방향이 필요 하다는 쪽으로 기울었음. 기획 회의 초반에 마음(문장)에서 출발한 움직임을 해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고 다른 강사분들도 동의했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 해 못 하고 있었던 것을 한번 시도는 해보자 쪽으로 정리됨.



4회차

활동일시 | 2025.11.03(월요일) 10:00~12:00
 활동장소 | 한사랑 프로그램실

참석인원 | 1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나를 가로막는 것들' 돔 제작(김정윤 강사 이끔)**
- 한지를 손으로 찢어 내 마음의 모양을 만든다. 여러 개 중에 나의 것인 것 같은 3개를 고른다.
-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가로 막는 것'을 고른 종이에 적는다. (진한 펜, 반짝이는 펜, 적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고 빛을 비추었을 때 보이는 펜으로 비밀을 적기)
- 플라스틱 바스켓 2개에 종이를 붙이고 마주보게 만들어서 만든 돔이 있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자신이 쓴 것을 나누고 돔에 붙이기
- 모두 다 나와서 볼펜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 종이를 붙인 돔에 구멍 뚫기
- 조명을 끄고 돔 안에 조명을 넣어보고, 오로라 같은 빛이 나오는 미러볼을 넣어서 뚫린 구멍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별자리를 벽에 연출하기
- (쉬는 시간)

* 몸 움직이는 시간(최민경 이끔)

- 볼펜으로 구멍 뚫기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이어서 조명 끄고 천장에 별자리 연출한 채로 스트레스 푸는 춤 추기(몸 흔들기, 엉덩이 흔들기, 가능한 사람 점프, 큰 소리 지르기 등)
- 각자의 애창곡에서 움직임 춤동작 1가지 정하기, 애창곡ppt 들고 원으로 대형 후 애창곡 해당되는 사람은 가운데로 나와서 자신이 할 춤동작 할 때 사진 촬영했고 그 모습이 피피티에 첨부될 예정.

* 돌아본 시점들

협업의 만만치않음을 겪어 나가는 중. 예술생태계 바깥에서 줄곧 혼자 작업 해 왔던 나로서 훈련과 정이라 생각하기로 하고 그러면 좀 편한 느낌으로 바뀌는 느낌이다.



5회차

활동일시 | 2025.11.10(월요일) 10:30~12:00
활동장소 |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참석인원 | 13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1 몸푸는 놀이
 '나는 00에 삽니다' '나는 내 00를 사랑합니다.' '00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등의 문장이 담긴 스케치북이 있고 최민경이 스케치북을 들고 우주 음원에 맞추어 출발한다.
 한 사람을 만나고 스케치북을 무작위로 펼쳐서 나온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며 문장을 완성하여 말하고, 잘 모르겠으면 제자리에서 한바퀴 돌기로 함. 차례차례 만나는 사람들은 손을 잡고 있고 사람이 많아져서 원을 만들어 움직임에 변화를 주며 마지막에 큰 원을 만들고 마무리. / 퍼포먼스 중 "어색하면 돌아오~ 우주의 행성들은 도니까요" 대목이 추가되었는데 도는 동작을 몸에 익히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단답형 보다 문장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해보고자.

2 총연습 : 소악기, 관객들에게 나누어 줄 파란장미를 담은 가방을 회원분들이 메고, 색색의 천들과 파티안경 착용하고 총연습 진행

- * 실제무대 위치를 염두에 두고 한 쪽에서 시작하기/퍼레이드 끝나고 어수선 하겠지만 퍼포먼스 공연을 해야하니 집중을 한 뒤 우주음원에 맞추어 출발/헤엄치는 동작, 자신의 애창곡에서 하는 춤동작, 제자리에서 도는 동작, 마음가는 대로 하는 동작 중에서/ 실제 무대인 잔디밭에 도착하는 것을 상상하며 눈 앞의 관객들에게 파란 장미 나누어 주기/ 원 모양의 대형으로 돌아와 제자리에서 돌기
- * 우주 음원 멈춤/ 이신, 순자, 경숙, 승관, 인선 님이 애창곡메들리를 시작하며 관객을 초대하는 내용의 대사를 함
- * 비트 시작/ppt에 적힌 노래제목과 회원분들 이름 순서대로 원 중앙에 있는 스탠드 마이크로 한 사람씩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동작/마이크 대 옆에 태블릿이 있어 회원분들 보면서 할 수 있음.
- * 원 대형을 돌려 나누어서 구호 외치기를 번갈아 하고 환호 외치며 마무리

장수진 : 음악과 사용되는 장비 컨트롤 쉬는 시간 후
 소라엘, 최민경 : 회원분들과 퍼포먼스 같이 참여하며 바람잡이 역할 연습 한번 더 진행

* 돌아본 시점들

총연습 하면서 회원분들의 노래와 춤동작 담은 쇼츠 영상을 촬영하려 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하지 못 함 / 영상을 sns에 올렸을 때 저작권 문제도 있음.



6회차

활동일시 | 2025.11.21(요일) 9:30~11:3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1학년

참석인원 | 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30분 일찍 와서 교실 세팅하고 꾸미기**
 꾸미는 동안 아이들은 학급의 보조선생님들과 다른 공간에 있었음. 책상을 한 곳으로 밀고 바닥에 매트 여러장 깔기, 튜브 5개에 공기 채우기, 학급2개의 문과 창문 쪽에 바다 느낌 나는 비닐로 된 발 붙이기, 준비한 천으로 공간 세팅하기, 프로젝터 설치 등
- 바닷가 마을로 아이들 초대하기(강나루 강사 진행)**
 - * 진행자가 교실 밖에서 아이들을 맞기로 하고 바닷가 마을로 초대하기, 이름표 붙이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교실로 들어가서 소개하기로 함.
 - * 3명의 강사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맞았음. 바닥에 깔린 튜브를 보고는 아이들 튜브로 직진해서 놀이, 튜브 옆의 매트 공간에서 강나루 강사가 '무궁화 꽃이 공룡입니다' '무궁화 꽃이 갈매기입니다' 등의 몸표현 놀이 진행. 신문지를 말아서 만든 막대기가 요술막대기이고 막대기가 지팡이가 되기도 피리가 되기도 하는 연극놀이 진행.
- 소리로 여행하기 (장수진, 김정운 강사 진행)**
 원하는 튜브에 누우면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시작. 조명을 끄고 천장에 프로젝터를 비춤. 소리의 크기에 반응하며 모양을 생성해내는 프로그램 통해 천장에 실시간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여러 모양들을 보며 시각적인 재미를 느낀다. 장수진 강사가 멘트를 하며 우주소리, 빗소리, 바다소리등의 음원을 따라 공간을 상상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이끌었고 아이들은 좀 차분해진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누웠던 것 같다.
- 되어보기 몸 표현 (최민경 강사 진행)**
 자신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보기를 계획했지만,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 '유연성'과 '들기'에 이 시간동안 집중하고자 했고 '소리로 여행하기' 동안 나는 지완이 옆에서 소리 들으며 누운 채로 움직이는 것을 계속 함(이어서 내가 진행할 꼭지와의 연결을 위해, 또 지완이가 움직임에 반응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끄는 동안 공간 전체를 듣는다는 느낌으로 움직였고 퍼포머의 집중력이 높을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에 기대어 진행함. 사슴, 풀, 돌고래, 물고기 등이 되어보기 / 불빛이 나는 펜으로 천장의 소리에 반응하는 모양에 더해서 동그라미, 네모등을 상상으로 그려보고 마지막으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상상을 해보자며 가까이 모여 이불을 덮고 인사 나누고 하이파이브 하고 마무리.



● 아이들의 반응

준호와 준서는 활발하고 호응이 좋은 편이었고 요술막대기로 공룡의 뿔, 매머드 뿔을 표현함. 지완이는 표정이 불편하고 호응이 없는 쪽이었는데 푸른 색 하늘하늘 비치는 천으로 얼굴을 쓸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나는 지완이를 살피며 천 놀이(?)를 같이 함. 시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쪽, 강사가 이끄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튜브에 계속 관심 가졌으며 보조 선생님들이 도와주었을 때 잠깐잠깐 활동에 들어옴. 연아는 수줍음이 있었지만 활동에 잘 참여하는 편이었고 뽕굴 때 강사에게 안기기도 함.

* 돌아본 시점들

지완이는 기관 방문 때 봤을 때는 생글생글 잘 웃는 아이였는데, 낯선 환경이 되니 적응하기 힘들어 했다. 아이들이 낯설고 재밌는 환경에서 즐겁지 않을까하는 아이디어였는데, 낯선 환경이 불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못 했다.



♡ 최민경

활동 기록

1. 나의 실현 과정 정리

☞ 사이예술학교 지원서에 "언제나 '다양한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비장애인의 것과는 다른 장애인이 느끼는 압도적으로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며 세상에 그 감각들이 온전히 다채롭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썼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채롭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편인데, 정작 나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 예술학교 과정을 준비하고 해 나가면서 '개별성'이라는 것이 또렷하고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몸과 그 감각을 중심으로 한 개별성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을, 그 사람이 표현의 주체로서 마음에 들게 표현하는 일을, 나의 개별성이 숨죽이지 않은 채로 함께 하는 작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사이예술학교를 통해 협업을 하면서 나에 대한 이해가 늘어났고, 협업을 통해까지 가능한 일, 확장성, 재미, 협업의 만만치 않음을 몸으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장애예술의 장에 들어섬에 있어 나는 첫 단추를 꿴고 있는 중인데, 사이예술학교 과정을 통해 많이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련해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1~2회차

활동일시 | 2025.09.27.(토요일) 10:30~1430

활동장소 | 유희열미술관



참석인원 | 30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I. 개요

본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여자가 함께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전시 작가 및 전문 예술인과 직접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상호 공감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장애인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대화를 통해, 예술 현장을 보다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II. 진행 내용

1 작품 전시 관람

- *전문 예술인의 해설과 함께 주요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도록 지원하였다.
-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미술작품을 장애인 참여자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제공하여, 작품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돕고 각자의 감각과 경험에 따라 해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단순한 수동적 관람을 넘어, 작품 앞에서 감상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2 전시 작가와의 만남

- *전시 작가가 직접 창작 과정과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참여자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 *여러 장르의 전문 예술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일상의 언어로 작품과 예술적 경험을 공유하였다.
-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문 전업 예술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예술적 감수성과 정서를 공유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예술인들 또한 장애 예술인·관람자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공감을 쌓을 수 있었다.



3 예술 이야기 나눔 & 다과

- *단순한 다과 시간이 아니라, 전시 작품과 예술적 대화를 배경으로 한 품격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전시 작가, 참여 전문 활동예술인, 한사랑 참여자가 함께 차와 다과를 나누며 각자의 감상과 경험을 존중하며 공유하였다.
- *예술적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고 품격 있는 정서를 함께 경험하며, 장애인과 예술인이 동등한 주제로 만나는 공동체적 경험의 장이 형성되었다.



III. 성과 및 의의

-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각과 해석을 표현하며 예술적 자율성과 자신감을 높였다.
- *전시 작가 및 전문 예술인과의 만남은 참여자들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예술인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의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얻게 되었다.
- *다과와 대화를 결합한 교류의 장은 단순한 프로그램 활동을 넘어, 예술적 공존과 공동체적 정서를 경험하는 특별한 의미를 남겼다.
- *본 활동은 예술을 매개로 한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 돌아본 시점들



I. 운영 중 겪은 어려움

- ◆ 일부 참여자는 작품 해설과 대화 과정에서 긴 집중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 ◆ 전시장 구조와 동선이 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 참여자에게 다소 불편하여 이동과 접근성 면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했다.
- ◆ 예술인과의 대화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참여자의 발언이나 질문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였다. 특히 정신 및 발달장애인 참여자와의 예술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II. 개선 방안 (다음 활동 반영)

- ◆ 작품 감상과 대화 시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집중도를 높이고, 짧고 명확한 설명 방식을 도입한다.
- ◆ 접근성이 보장된 공간을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한다.
- ◆ 참여자별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며, 대화 시간을 확대한다.



III. 향후 프로그램 확장 아이디어

융합형 프로그램



미술·음악·무용·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다원예술 감상·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참여형 창작 워크숍



감상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직접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마련한다.



IV. 후속 지원 필요 사항

- ◆ 재정적 지원 : 안정적인 예산 확보
- ◆ 전문 인력 지원 : 장애인 참여자의 눈높이에 맞춘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해설사(도슨트)와, 원활한 관람과 소통을 지원할 보조 인력의 확보 필요



3~4회차

📅 활동일시 | 2025.10.25(요일) 11:00~16:00
📍 활동장소 | 삼례예술촌 금마-어은당

👥 참석인원 | 2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1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미술 전시장 관람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미술 전시장을 방문하여 김성민 작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였다. 작가와의 현장 교류를 통해 작품 제작 과정과 주제 의식을 직접 들으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참여자들은 작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작품의 질감·색채·구성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작품 감상 과정에서 표현 방식과 예술적 상징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감상 경험이 확장되었다. 이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미술 작품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예술적 자각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 현장 미술 활동

한사랑 기관의 정신장애인 참여자들은 전문예술인의 안내를 따라 자연 속으로 이동하여 주변 풍경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인은 자연의 색감, 빛의 변화, 형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감상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풍경 사진을 촬영하는 기초 방법을 배우고, 각자 눈에 들어오는 장면을 자유롭게 촬영하며 자연을 감각적으로 경험하였다.

3 예술인과의 교류

전문예술인은 참여자들의 촬영 과정과 자연 관찰 방식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별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예술가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관찰 포인트를 설명하거나, 사진 촬영에서 느낀 어려움과 흥미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다 친근하고 자발적으로 느끼도록 돕는 긍정적 경험이 되었다.

4 예술 이야기 나눔

활동을 마무리하며 참여자들과 예술인은 오늘 촬영한 사진과 자연에서 경험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느낀 감정, 새로운 관찰 방식, 사진 촬영의 즐거움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예술인은 각 발언을 존중하며 자연과 예술 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감수성 확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하였다.



* 돌아본 시점들

1 운영 중 겪은 어려움

- ◆ 실내 전시 관람 시 참여자들의 집중 시간이 각기 달라, 작품 설명과 감상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 자연 관찰 및 사진 촬영 활동에서 일부 참여자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기본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었다.
- ◆ 야외 활동 특성상 이동 동선 조율이 필요했으며, 참여자의 컨디션 변화에 따라 진행 속도를 여러 차례 조정해야 했다.
- ◆ 예술 이야기 나눔 과정에서 발화 속도와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어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예상 시간보다 길어졌다.

2 다음 활동에 반영할 개선 방안

- ◆ 전시 관람 전, 작품 감상 포인트를 미리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 '관람 안내 카드'를 제공한다.
- ◆ 야외 촬영 활동 전 스마트폰 기본 기능(초점, 밝기, 구도 잡기 등)을 시범으로 짧게 시연하는 '사전 기술 익힘 시간'을 포함한다.
- ◆ 이동 동선과 활동 구간을 사전에 더 세분화하여, 컨디션이 다른 참여자들도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식 포인트를 확보한다.
- ◆ 이야기 나눔 시간은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여 표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최은정

활동 기록



1. 나의 실현 과정 정리

- ㉠ 사이:예술학교와 함께한 이번 시간은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참여자들과 만났지만, 실은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에 더 가까웠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보다, 이 시간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감각으로 기억될 것인가였다. 예술 활동이 부담이나 숙제가 아닌, 잠시 머물러도 괜찮은 시간으로 느껴지기를 바랐다.
- ㉡ 프로그램 초반에는 내가 준비한 계획과 현장의 상황 사이에서 여러 번 고민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고, 활동의 속도나 방식 또한 그때그때 조정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흔들림 자체가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은 늘 계획보다 앞서 있었고,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 회차가 거듭될수록 참여자들은 공간과 활동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던 눈빛이 점차 편안해졌고, 작은 소리나 움직임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순간들이 늘어났다. 말이 많지 않더라도 표정의 변화나 몸의 방향,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참여자들이 이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변화들은 눈에 띄게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참여자들이 활동을 '잘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괜찮은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악기를 조심스럽게 만지거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머무는 모습, 옆 사람의 움직임을 의식하며 반응하는 장면들은 이 프로그램이 조금씩 참여자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같은 활동 안에서도 참여자들의 반응은 모두 달랐다. 누군가는 소리에 오래 머물렀고, 누군가는 몸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그 차이를 바라보며, 장애예술교육은 정해진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이 존중받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획한 흐름을 내려놓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이 오히려 더 깊은 경험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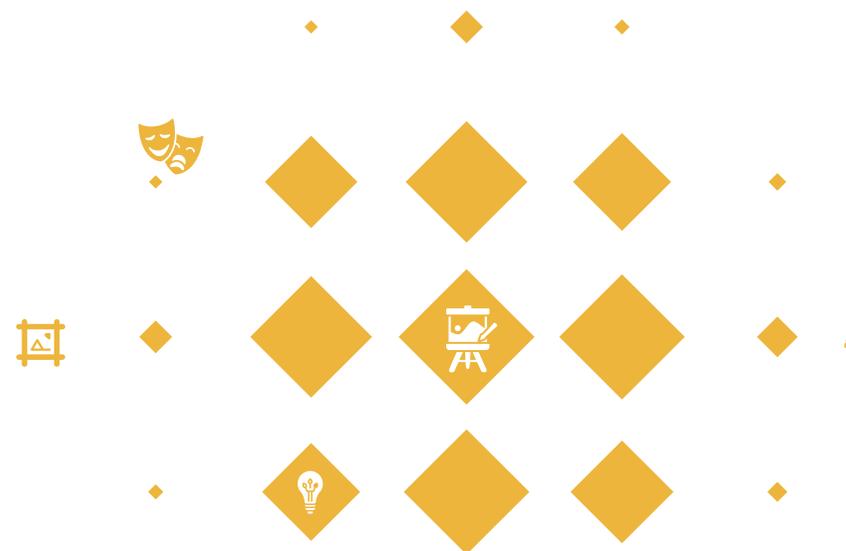
- ㉣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완성된 결과보다 과정에서 만들어진 분위기와 관계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함께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 안에서 예술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각을 열고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었다.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참여자들뿐 아니라 나 역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할지 고민하던 태도에서,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바라보는 자세로 조금은 이동해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다가왔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3.

'되어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 사이:예술학교는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나의 태도를 다시 바라보게 한 시간이었다. 앞서 이끄는 사람이기보다 곁에서 기다리고, 관찰하고, 함께 호흡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시간 속에서 쌓인 경험과 감정들이 앞으로의 예술교육 현장에서도 오래도록 남아, 또 다른 만남과 배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회차

활동일시 | 2025.10.28(화요일) 10:00~12:0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초등1학년교실

참석인원 | 9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첼로의 줄을 튕기면서 악기의 소리 울림을 직접 느껴보게 해보면서 대상 아동들도 같이 줄을 튕겨보면서 소리를 내보았다.
- 반주와 함께 첼로 연주를 해보았다. 연주곡은 시대를 (초월한마음, 데스파시토) 금관악기인 유포늄을 보여주며 아동들에게 악기의 벨브를 직접 누를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다. 트럼펫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소리가 생각보다 크다며 놀라기도 하였다.
 - 플루트 반주와 함께 연주 해주었다. 이후 목관 악기인 리즈, 버드휘슬, 밤부플루트의 악기 소리들 들려주었다. 한아동은 악기에 집착이 있어서 직접 연주를 하고 싶다는 행동을 하였으며 음악이 나올때면 신이난듯 춤을 추기도 하였다.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 시 저학년의 특성상 집중력이 부족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였지만 자리가탈도 하지 않았으며 수업이 진행될수록 연주와 악기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

* 돌아본
시점들

악기의 특성상 입에 대는 악기들이 많아서 직접 해볼 수 없어서 아쉽기도 하였다. 다음 차시에 대상 아동이 직접 연주를 해볼 수 있는 악기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수업중 다른반 학생및 선생님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기도 하였다. 아동들이 다소 집중에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2회차

활동일시 | 2025.11.05(수요일) 09:30~11:3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초등1학년교실

참석인원 | 8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가을의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 아동들에게 현재의 계절과 편지를 붙이는 곳이 어디냐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후 대답을 직접 듣게 하였으며 첼로 연주로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의 곡을 연주하게 되었다. 학생보다는 담임선생님과 다른반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였다.
 - 카주라는 악기를 하나씩 나눠줬으며 악기의 소리내는 법을 교육시킨후에 자유롭게 연주를 할수 있도록 유도 하였다.
 - 이후에 데몬헌터스ost중 골든 연주곡을 반주와 첼로연주로 같이 카주를 이용해서 합동 연주를 하였다. 휠체어에 있었던 아동에게는 마라카스를 주었으며 노래가 끝날때까지 아주 신이난듯 연주를 같이 해주었다.
 - 나무 실로폰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보고 자신감을 가질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드는게 어려울때는 보조강사의 도움을 받아 악기를 완성하게 되었다.

* 돌아본
시점들

수업 중 여러 학생들이 참관을 하게 되었으며 1학년 한반만 수업을 하기에는 다른반 담임선생님들도 아쉬워 하셨다. 이후 고감 선생님과 상의 후에 다음 차시에는 중, 고등학생의 수업도 부탁을 하겠다.



3회차

활동일시 | 2025.11.13(목요일) 09:20~10:5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중학교3학년교실

참석인원 | 8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첼로를 해보았다는 학생이 있었으며 첼로 연주를 할때에 유심히 관찰을 하였다.
- 이후 한 학생이 첼로를 직접 연주해 볼수 있냐는 질문에 첼로 악기를 잡는법과 자세를 알려주었으며 제법 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푸른학교에서 다년간 첼로를 배운 남학생이 자신도 연주를 해볼수 있냐는 말에 직접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곡을 연주를 하였다. 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저그런 실력일줄 알았지만 소리도 너무 깔끔하게 내고 자세도 매우 좋았다. 그리고 곡을 외워서 연주를 하였던 것이었다. 그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현재 전주특수교육청에서 장애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어서 꼭 다음 년도에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 이후 금관 악기인 트럼펫과 유포늄을 소개하였으며 플루트 연주곡인 나루토ost중 슬픔의 비애곡을 반주와 함께 연주 하였다.
- 교실 창문쪽에 다른반 선생님들이 몰려오셔서 첼로연주를 듣고 싶어하셔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을 첼로로 연주하였다. 오선드럼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느꼈던 생각을 말할수 있도록하였으며 정답은 내가 생각하는 소리가 정답이라고 답해주었다.

* 돌아본 시점들

수업 시작 시에 갑자기 의자를 여러개 가져오시더니 다른 반학생들도 수업을 같이 들어도 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황을 하였지만 같이 수업에 참관을 해도 된다고 하였다. 답임을 받고 계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학급, 학년들에게도 수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4회차

활동일시 | 2025.11.13(목요일) 10:50~12:4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고등학교3학년교실

참석인원 | 8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첼로의 악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튕기는 주법 피치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여러 학생들도 같이 악기를 튕기면서 소리를 내보았다.
- 반주가 없는 곡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으며 그중 한명이 무반주 라고 답해주었으며 이후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연주해주었다. 반주가 없다보니 다소 어색할수도 있었지만 최고학년이다 보니 다들 집중력이 매우 높았다.
- 두 번째 곡으로 데시파시토의 곡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이곡은 4개의 코드로 반복되는 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이해하는듯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보였다.
- 버드휘슬을 볼때에는 저번시간에 이야기를 볼때 새가 교실에 들어왔다는 농담을 하였으나 실제로 진짜로 믿고 있어서 마치 새가 날아드는 소리의 악기라고 설명 해주었다. 금관악기를 설명후에 한 여학생에게 악기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였지만 어색한듯 처음에는 낯설어 하였지만 이후 악기의 벨브를 눌러 보았다.
- 마지막 곡으로 아로하곡을 연주할때에 맨앞에 앉은 여학생이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었으며 자신도 이곡의 가사를 알고 있다며 끝까지 노래를 같이 불러 주었다.

* 돌아본 시점들

갑작스러운 학년들의 변화에 여러 가지를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악기를 준비 할 수 있어서 수업의 안정성을 찾을 수 있었다. 미리 수업 시 대상자의 학년과 인원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5회차

활동일시 | 2025.11.19(수요일) 09:20~10:5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고등학교2학년

참석인원 | 9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대상자들이 첼로의 줄을 튕기고 악기의 뒷판을 두드리면서 악기의 특성을 알아갔다.
- 첼로연주를 시작 했지만 대상자들이 자리에탈을 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감상을 하였다.
- 한국가요100선중 64위에 속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연주곡을, 처음에는 트럼펫으로 연주하고 2절때에는 유포늄연주를 하였으며 이후 첼로 연주를 하였다. 한국을 이렇게 다양하게 연주한걸 들어본적도 없다고 하였고, 악기의 호기심이 높아진것 같다.
- 대상자들에게 플루트를 보여주며 왜 목관 악기가 금속으로 되어있냐는 질문에 한 학생이 나무로 만들면 침이 들어가서 부식이 심해지고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정확한 대답을 듣고 하였다.
- 버드휘슬을 이용하여 새소리를 만들어보기도 하였으며 실제 새가 밖에서 들어올려고 하는듯한 모습에 모두 창문을 쳐다 보기도 하였다.
- 이러한 것들이 장애학생이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리더에 집중을 잘하였으며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것 같았다.

* 돌아본 시점들

학년이 높다 보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았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악기의 관심이 많았으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좋은 연주자를 만들수 있을거라는 욕심이 생겼다. 선생님께서도 오늘을 통해서 학교의 오케스트라의 발전 과정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하셨다.



6회차

활동일시 | 2025.11.19(수요일) 10:50~12:2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중학교2학년

참석인원 | 12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첼로의 줄을 튕기는 시범을 보였는데 여학생중 한명이 정확하게 피치카토연주 라는 단어를 대답하였다.
- 실제로 푸른학교에서 첼로를 배우고 있었으며 행동과 언어가 매우 정확하였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곡을 연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실제로도 악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즉흥적으로 첼로로 연주를 해주기도 하였다.
- 금관 악기인 유포늄을 보여주며 악기에 대해서 질문은 하였는데 남학생이 튜바라는 대답을 하였고 튜바와 모습은 같지만 사이즈가 조금 작은 악기라고 답을 해주었다. 리즈 악기를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할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 하였고 음악과 예술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술이고 음악이 될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 클라리넷으로 섬집이기 연주를 할때에는 리듬을 맞춘듯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박자를 맞추는듯 하였다.
- 이후 리듬타악기인 귀로, 우드블럭, 클라터 필러등 일상 생활에서 있을듯한 악기로 시범을 보여주었다. 이중 한학생은 귀로를 보며 빨래판 같다는 이야기를 하여서 집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는것을 가져와서 지금 빨래를 못한다고 하였더니 학생들이 웃기도 하였다. 리더자의 언어와 행동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 학생들은 이해를 하였으며 매우 긍정적이 었다.

* 돌아본 시점들

발달 장애인 학생이지만 오히려 어떠한 부분에서는 비장애 학생보다 능력이 뛰어난것 같다. 푸른학교에는 오케스트라가 없으며 현재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지도를 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학교측에서 오케스트라를 추후에 만들때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이번계기로 푸른학교를 넘어서 완주군에 처음으로 발달 장애인 연주단체가 생기를 바란다.



7회차

활동일시 | 2025.11.21(금요일) 09:20~10:5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중학교1학년

참석인원 | 16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프로그램 시작을 준비하던중 갑자기 다른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 이중 한 학생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업에 방해가 될정도로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첼로를 보여주면서 줄을 튕겨 볼수 있도록 한명씩 체험을 해주었으며 첼로 연주가 끝난후에 한 남학생이 자신도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하여서 앞에 나와서 연주를 시도 하기도 하였다. 이학생은 처음 첼로를 잡아 보는 학생 이었으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손가락 운지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였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한분야에 특출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 이후 시(B),솔(G),레(D),라(A)의 코드로 진행되는 곡인 데스파시오 연주를 해주면서 음계를 따라할수 있게 유도를 하였고 큰소리로 음계를 따라 하기도 하였다. 금관 악기인 유포늄과, 트럼펫 연주를 하면서 악기에 대해서 흥미를 주었으며, 직접 만져도 볼수 있게 하였다. 한학생은 차가운 느낌에 어색한 듯 거부를 하였지만 천천히 악기를 만져보고 벨브도 눌러 보았다.
- 차크라(싱잉볼)연주를 통해서 소리의 울림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착한사람들만 들을 수 있다는 멘트와 함께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돌아본 시점들

갑작스러운 인원이 들어올경우에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를 하고 싶다는 부탁에 거절을 할수가 없어서 참여를 허락 하였다.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반에 학생들은 자세가 좋으며 인지도 좋았지만 갑작스럽게 참여하는 학생의 수업 방해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할것이다.



8회차

활동일시 | 2025.11.21(금요일) 10:50~12:20
활동장소 | 전북푸른학교 6학년교실

참석인원 | 15명

* 함께 만들어간 시간

- ▶ 악기를 탐색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사람씩 악기를 만져보며 소리를 들어보며 그 울림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 6학년반 학생들은 정리가 잘되었었으며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았으며 진행자의 행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한세션이 끝날때마다 박수를 쳐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른 저학년들의 참관으로 인하여 다소 어수선 해지기도 하였다.
- 트럼펫 연주후에 늦게 참관한 저학년 학생이 트럼펫에 관심이 많아서 자리이탈을 하며 선생님의 지시에도 제지가 되지 않았으며 매우 시끄럽게 하여서 실제 트럼펫을 그 학생에게 주기도 하였다. 선생님의 관리하에 트럼펫을 받은 학생은 이후 자신의 반으로 가기도 하였다.
- 대나무로 만든 목관악기인, 리즈, 밤부플루트, 호루시, 아일리쉬 휘슬등을 보여주며 연주를 해보았으며 카주를 한명씩 나눠주면서 악기 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데몬헌터스ost중 골든 노래와 함께 다같이 합주를 해보았다.
- 재미있는 소리에 흥미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계기로 악기에 대한 접근과 관심이 더욱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돌아본 시점들

고전시대의 음악은 먹고 떠들고 사교의 장이며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야하는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에 선생님들의 제지로 너무 음악에만 집중을 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지시를 학생들에게 내리기도 하였다. 프로그램의 의도를 설명하였지만 예술은 원래 그러하다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려야 하며 예술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것 이여야 한다.



♥ 한용희

활동 기록



1. 나의 실천 과정 정리

☞ 완주문화재단의 장애인 예술 교육 지원 사업인 「사이 예술학교」에 참여하면서,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질문은 *장애인들과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었다. 예술 교육이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접근 방식과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교육은 개개인의 특성과 반응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유연하고 세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 예술 활동 내용 및 개인적 변화

☞ 프로그램을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질문은 점차 구체화되었고, 새로운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중 가장 크게 다가왔던 질문은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하는 돌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문제였다. 예술 활동은 참여자들의 감정과 감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반응이나 행동이 나타나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발 행동 또한 참여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어와 통제보다는 관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특히 첼로 연주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첼로의 낮고 부드러운 음색은 참여자들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감정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상자들이 첼로를 직접 만져보고, 활을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악기 연주가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정서 조절과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 또한 여러 악기를 직접 접해보고, 다양한 연주를 감상하는 활동 역시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악기의 크기, 소리, 질감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대상자들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보였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단순히 듣는 활동보다 만지고 체험하는 과정이 포함되었을 때 참여자들의 반응이 훨씬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체험 중심의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본 프로그램은 보조강사와 함께 전북 푸른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협력적인 수업 운영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장애인 학생의 첼로 연주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스스로 연주에 대해 자신 없어 했지만, 반복적인 시도와 격려 속에서 점차 안정적인 연주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며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 경험은 장애인 예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들이 지닌 예술적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술 교육이 제공된다면 장애인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은 교육자로서의 나의 시각과 태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3. '다시보기'의 경험과 향후 방향

☞ 향후에는 본 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예술적 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특히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주 단체를 넘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지속적인 연습과 공연 기회를 통해 장애인 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더 많은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싶다.

☞ 「사이 예술학교」는 장애인 예술 교육의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깊이 느끼게 되었다.





“완성보다 과정이, 결과보다 사람이”





“장애와 예술과 지역과 사람 사이에
머문 시간, 사이예술학교”





함께한 사람들

그
관
과
현
장
을
다
러
주
는
모
든
사람

예술과 삶 사이에서 시작된 배움



전북특별자치도마음사랑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 560개의 병상과 낮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분들의 회복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진행하다 보니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이 예술학교 예술가분들의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의 투약시간, 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는 50분 내외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나, 흥미롭고 다양한 구성 및 활동으로 참여자의 몰입도가 높아 내년에는 활동시간 확대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낮병원 담당 선생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완주문화재단, 예술가분들, 기관 담당자분들 을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으로 만나 뵙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업 참여 이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가졌던 '첫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 예술가가 진행하는 정신질환자 대상 예술 프로그램이 어떨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전문성과 한계 없는 예술성을 바탕으로 활동이 자유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향후 누구와, 어떤 활동 또는 예술적 시도를 해보고 싶은지

☞ 예술가와 함께한 활동이 짧았지만 그 활동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습니다. 향후 완주문화재단 예술가와 함께 정신질환자 문화예술분야를 깊이 있게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음악과 미술 분야를 토대로 타 분야와 융합된 다원예술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한 작품이나 결과물을 공유하는 전시회 및 자료집 등을 발간하고 과정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전 등 정신질환자 문화예술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북지역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많은 도민들이 정신질환자 문화예술을 함께할 수 있게 진행 예정입니다.



소라엘님

- 부정적 감정 해소**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담스럽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와 진행자의 수용하는 태도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었음
- 성취감 향상**

미술에 관심 있는 참여 회원들에게 스스로 멋진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자신감을 얻고 다음 회기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였음



어코드팀

- 새로운 경험 제공**

낮병원 내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음악, 향기요법이 부족하여 새로운 경험이었음
- 긍정적 상호작용 증가**

악기를 연주하고 합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참여자 사이 긍정적인 소통능력이 증가함. 참여자들 사이에도 배려·참여 독려·칭찬 등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소통 환경을 구상함. 향기요법 통해 '쉼', '편안함'과 같은 정적인 내면 소통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음
- 신체활동 허들 낮추기**

음악 매개체를 통해 소근육부터 대근육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춤. 신체활동에 대한 즐거움, 기쁨, 함께함 등의 긍정적인 가치 경험하게 함



새로운 만남이 새긴 다채로운 모습



완주문화재단과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만나고 있다. “사이:예술학교”라는 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입주자(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어! 좋다. 이 사업 함께 해보고 싶다!” 우리 입주자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기관에서 또는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전문가들과의 만남이 기대가 되었다. 입주자분과 강사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그 만남이 지속되면서 입주자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미술, 연극,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입주자 분들의 삶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

세상 천진난만한 미소로 웃어내는 웃음은 행복함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었다. 평소 움직임이 많이 느렸던 어떤 분은, 수업시간동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빠른 움직임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한쪽 벽면을 전체를 채운 전신거울을 바라보며 멋드러진 춤사위를 펼쳐내는 모습.

내가 그린 여러가지 그림을 투명 비닐우산에 붙여가며 활짝 웃어내는 모습.

과거 자신을 누르고 있던 아픔들을 비워내며 표현하던 모습.



자신의 삶의 세계들을 자신만의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 것 같았다.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준 방법이 있었기에 이러한 놀랍고 행복한 일들을 가능하게 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행복해서 웃어내는 웃음이 가득했던 시간” 이어서
좋았던 사이:예술학교 였다.

내년 또 함께할 시간이 많이 많이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

제도와 현장을 잇는 사이:예술학교



이번 사이예술학교의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과 부모님들, 또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많은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악 전문가분들을 통해 다양한 악기를 체험해 보고 악기의 연주를 깊이 있게 감상해 볼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악기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를 발산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학생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과 변화에 있어서 거부감이 심한 학생이 교실의 큰 변화에도 거부하지 않고 학생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세 번째로는 예술가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열정을 느끼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큰 만족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더 알아가려고 하시는 모습에 학생들도 금방 마음을 열고 즐겁게 참여하였고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선생님들 모두 천사 같으시다고 하시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이예술학교를 통해서 예술에 소외를 느끼기 쉬운 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을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누구보다 필요한 학생들이데 환경과 재정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제한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하지만 이번 기회로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수준 높은 예술적 경험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예술 교육의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예술가분들께서 장애를 뛰어넘어 예술을 공유하고자 하시는 열정에 감명받았으며 이러한 사업이 더욱더 발전하고 확장되어서 예술가 분들의 열정이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큰 기쁨과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신장애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으로 재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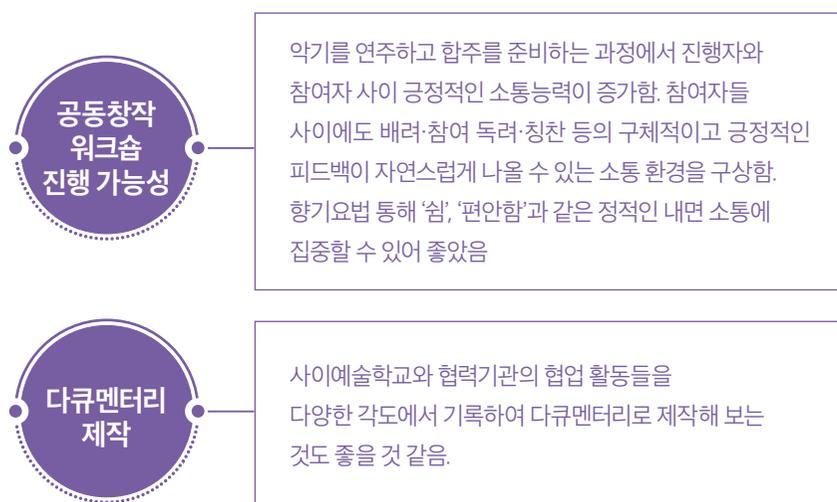


“우리들만 시키지 않고 선생님들이같이 해 주셔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서로 더 어울리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함께 했던 행동들을 매드프라이드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왠지 우리를 보는 시선들이 부러워 하는 것 같았다.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재미있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물어봐 주고 그 노래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재미있었다.
 “대사를 외우는 연극도 재미있지만 대사 없이 몸으로만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다.”
 “매드프라이드 주제와 잘 맞는 우리들의 어울림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것들을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새로운 문화활동을 자주 접해 보면 우리도 좋을 것 같다”
 “처음에는 몸을 움직이는게 어색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재미있게 참여했다. 그리고 부담감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너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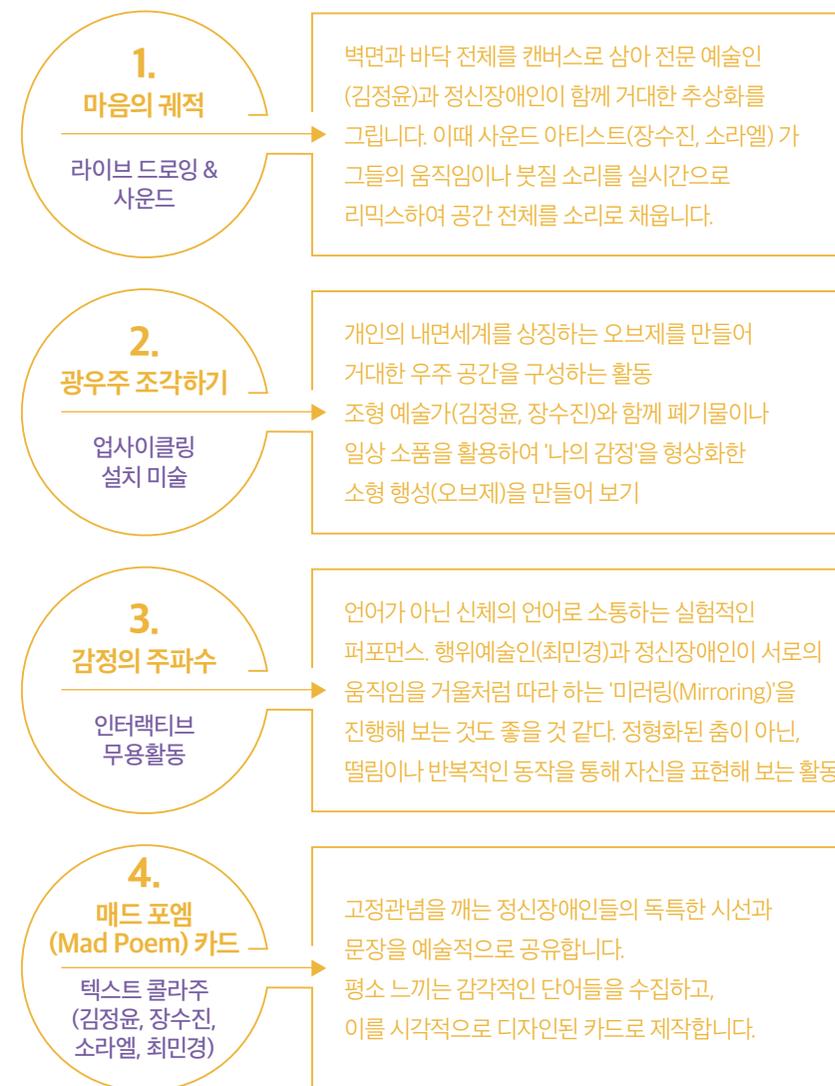
사이예술학교 강사들과 활동한 결과물을 한사랑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동체 아리아리의 매드프라이드 축제에 녹여 냈다. 그 결과 향후 사이예술학교 실험활동들이 더욱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기도 하였다.

추후 사이예술학교와 함께 한다면 정신장애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으로 재 정의하여 대중이 가진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다원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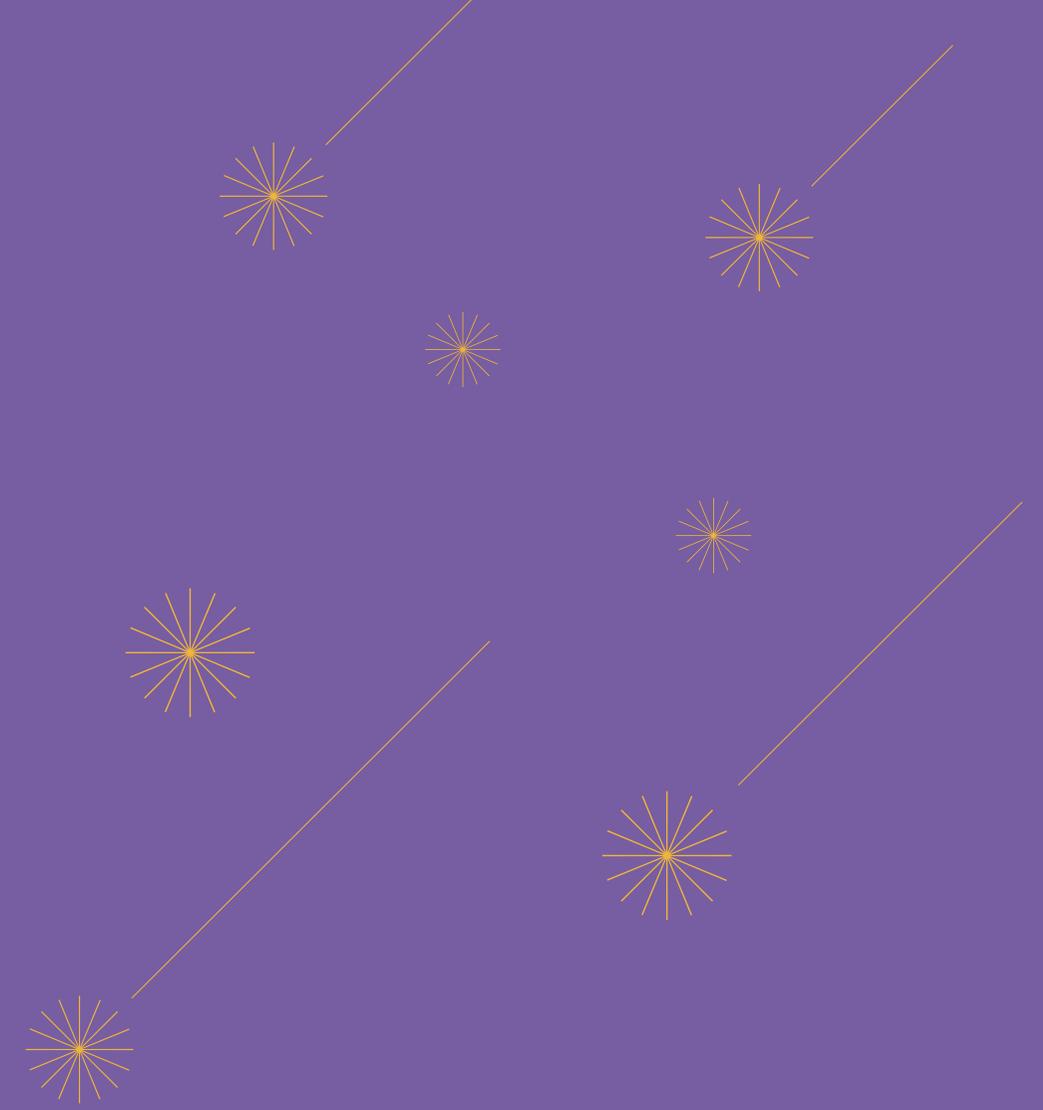


올해 진행되었던 사이예술학교 강사님들(김정윤, 장수진, 소라엘, 최민경)과 함께 했던 광우주를 확장해서 내년에 함께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정신장애인과 전문예술인이 함께하는 체험형 활동은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 '서로 다른 감각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협업할 때 가장 실험적이고 감동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는 예술'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여 해 주시는 전문예술인은 정신장애인의 독창적인 감각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머투의 목소리



사이:예술학교 만남은 '서로의 든든한 동료가 되는 것'

- 문해주(월광)

2025년 <사이:예술학교> 과정 안에서 멘토라는 역할로 참여 예술인 5분을 만났다. 첫 만남은 8월, 온라인 전체 특강을 통해 5분의 참여 예술인이 정해졌고, 9월부터 12월까지 4번의 오프라인 만남을 완주에서 가졌다. 우리의 만남은 늘 '대화'로 시작되었다. 대화의 시간은 만나지 못한 그 사이의 시간의 틈들을 촘촘하고 말랑하게 다시 바라보았다. 서로를 응원하며,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멘토는 참여 예술인들을 만나기 전에 한 달 사이의 과정을 완주문화재단 담당 김희윤 선생님을 통해 전해 들었고, 참여 예술인들이 작성한 서류의 글과 자료를 통해 사전에 나누면 좋을 주제들을 미리 파악하였다. 멘토링 과정을 통해 서로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속도를 조절하고, 응원하며, 서로의 든든한 동료가 되는 과정이었다.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예술'의 관점들을 확인하고, 고민되는 지점들을 나누며, 서로의 걸들을 맞추어 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 ☞ 전체 사이:예술학교 사업의 방향들을 파악하고, 완주문화재단과 각 기관의 상황과 참여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그러한 과정들은 참여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만났으며, 그 과정을 다시 만남의 시간에서 나누어 주었다. 자연스럽게 기관의 공간과 사람들을 만나고부터 작업의 방향과 고민이 시작되었다. 멘토링 시간을 통해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예술가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다.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질문을 나누면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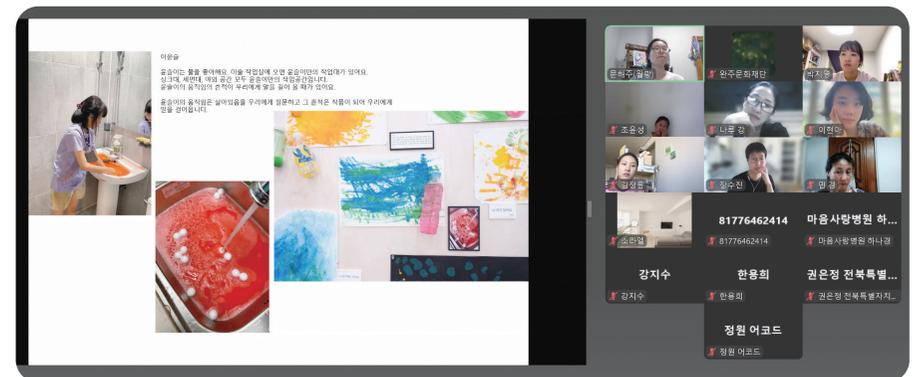
결과공유회



결과공유회



멘토강의



멘토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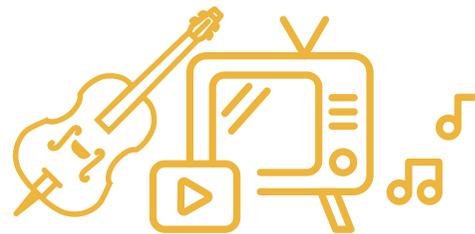
사이사이에는 발견한 것이 배움으로 연결되었다. 때로는 서로의 작업을 함께 해보자고 도모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보태보기도 했다.

우리의 주된 대화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고민과 '나만의 틀'을 무너트리고, 다시 쌓아보고, 누군가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같이 해보기도 하고, 무언가 만들어보기 위해 기운을 모아보고, 손길을 더하는 작업이었다. 바닷가에 모래성을 짓듯, 누군가 각자의 역할들을 찾아서 해보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 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다른 누군가 함께 할 때 나오는 '새로운 가능성도 발견'했다.

올해 사이:예술학교는 모든 참여 주체가 '서로의 여러 틈'을 내어주며 시작되었다. 서로의 틈을 가로지르며, 느슨하지만 촘촘하게 무언가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완주군 내 4개의 장애인 관련 기관(마음사랑병원, 예수재활원, 전북푸른학교, 한사랑) 담당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 예술인들의 느슨한 협업 과정들이 모이고 모여, 그 사이의 틈들을 내어주고,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만남이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게 '작지만 느슨한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2025년 <사이:예술학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 재단, 참여기관, 멘토, 참여 예술인 모두가 '다양한 사회의 역할들'을 예술을 통해 '서로가 되어보기'를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며, 서로의 틈 사이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 배움의 과정들을 다시 나누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 다시 삶과 일상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즐거워야 참여자분들도 즐겁다"라는 참여 예술인의 경험의 이야기처럼 '즐겁게 서로의 사이의 틈을 만들어가는 창작의 시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멘토링



멘토링



멘토링



멘토링



멘토링

오래오래 쉽지 않은 선택을

- 최선영(문화예술기획자)



보편성, 그다음의 질문

- ☞ 제도권 안에서 장애인 예술교육이 진행되는 맥락은 맥락은 장애인 '도'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성 측면이 크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어져 온 예술교육 사업 안에 장애인의 참여도 고려하지는 취지다. 그런데 다양한 시민의 예술교육 참여를 고려할 때,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특정 대상에 맞춘 내용 마련에 집중한다. 장애인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을, 노인에게는 이런 활동을, 유아에게는 이런 경험을, 이러한 관점으로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한다. 물론 생애주기나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참여자의 집단적 특성을 예측할 수는 있으나 많은 예술교육 현장이 그 예측을 벗어난 반응들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예술교육가의 질문과 고민은 계속 커져만 간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의 고도화나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은 '준비 단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참여자를 머릿속에 그리며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재료, 방법론을 준비한다. 장애인 예술교육도 마찬가지다. 특히 장애 유형별로 그 준비를 세분화하기도 한다.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은 '장애'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바로 '장애유형'이라는 공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현장에는 그 장애유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별적 욕구, 속도, 관심사를 가진 존재가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남의 방식이 매우 자세하게 설계된다. 어떤 순간에는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획의 입장만 강해진 채로 이것저것을 '독특하게 준비하는 것'에 몰두하기도 한다.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는 선택

- ☞ 그러나 시민을 정책적 대상으로 구분한 후 필요할 것 같은 무언가를 준비해 제공한다고 해서 보편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개별자로서의 시민 입장을 고려한 다른 접근이 필



멘토링



멘토링



멘토링



멘토 강의

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의 개별적 반응과 참여가 각기 다른 속도로 등장할 수 있도록 말이다. <사이:예술학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완성형의 프로그램을 현장에 제공하지 않았다. 사업이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더욱 체험 프로그램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컸지만 지역 내 매개자로서 예술교육가를 발굴해 이들이 참여자를 다각도로 궁금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를 위해 강의, 멘토링, 기관 답사, 관계자와의 만남을 '연구'의 과정으로 설계했다.

사업 오리엔테이션 자료 중 '연구 모임'에 대한 안내



예술교육가들은 이 과정 안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활동의 내용과 방법도 고민했으나 더 넓은 범위에서 참여자의 일상과 예술교육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었다. 참여자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주로 어떤 분위기의 공간에서 표현 활동을 하는지, 평소에 예술 관련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이들이 머무는 기관의 특성은 어떠한지,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장애인 예술교육에서는 얼마나 고려되는지 등. 그리고 이러한 연구, 질문의 과정은 예술교육가가 기관을 방문해 실제 활동(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는 기간에도 함께 이루어졌다. 즉, 예술교육가가 참여자와 현장 상황을 계속 살피며 유연한 운영을 이어간 것이다. 이것은 당연하고 쉬운 방식인 것 같지만 실제 예술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도되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보통 '계획' 중심으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권에서는 안정적으로 준비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 비용(강사비와 재료비 중심)을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유연한 운영은 공공기관이 시도하기에 그야말로 품이 많이 들고 쉽지 않은 방식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계획서를 수정하며 새로운 발견 요소를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정해둔 것을 얼마나 잘 진행했는지만 확인하면 수월하지만 <사이:예술학교>는 그 쉬운 선택을 하지 않았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술교육가들과 재단의 사업 담당자는 보통의 예술교육 사업보다 더 많은 서류를 더 자주 쓰고 계속 수정해야 했다.

흔들리는 과정도 지지하며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예술교육가들의 현장 활동까지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해진 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예술교육가와 현장 참여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아닐까. 그날따라 몸을 더 들썩거리고 싶은 참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욕구와 상태를 반영한 즉흥적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애써 준비한 활동이 다수에게 어떤 흥미도 주지 않는다면 다른 활동을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예술교육가가 아무리 참여자에 대해 '알아두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계속 다른 반응과 사건이 일어나기에 이러한 유연한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사이:예술학교>는 그 유연성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졌는데 계획안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던 예술교육가의 어려움이 다소 있기는 했으나 사업 중반부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장 진행이 가능해졌다. '개별성을 고려하며 계획을 수정해도 된다',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화되면서 예술교육가가 참여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멘토의 역할은 예술교육가를 만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 시선과 태도를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런 프로그램 방식이 좋다, 지난 활동에서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민하는 상황을 공감하며 응원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최근 활동에서 생긴 질문을 나누고 다른 현장과의 공통된 어려움은 없는지 살폈다. 역시나 다음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하

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보다 다음 만남에서 우리의 태도나 관점이 어떻게 더 열릴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 멘토링을 포함한 이러한 운영 구조는 완주문화재단이 지난 2년간의 사업에서 얻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사업도 현장 상황을 고려해 계속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길게, 천천히, 어렵게

그럼에도 이 사업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어 큰 아쉬움을 남겼다. 그 이유는 역시나 행정적, 제도적 상황 때문이었는데 이후에는 무엇보다 사업 기간을 늘리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이:예술학교>의 특징이기도 했던 유연한 운영은, 사업이 긴 호흡으로 진행되어야 더욱 그 의미와 성과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올해는 기관별 프로그램이 보통 4회차 정도로 운영되었고 현실적 상황 때문에 어떤 경우는 1회차만 운영되었다. 예술교육가와 참여자의 만남이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전제되면 체험 중심의 활동만 시도될 수 있다. 혹은 '이 시간이라도 다양한 경험 기회를 만들자'는 예술교육가의 의도가 커지면서 자극적 상황과 가시적 반응만 부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결과공유회에서 한 예술교육가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활동 중 풍선을 붙여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 참여자가 불기 전 쪼그라들어있는 풍선의 촉감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그 순간 본인은 그러한 반응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이 계속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장의 미묘한 개별 탐색이나 표현을 살펴본다면 다양한 재료, 효과, 자극이 마련되는 것 이전에 섬세한 시선이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느리고 긴 시간 속에서 가능하다. 어떤 날은 다 같이 무언가를 만져보고 어떤 날은 특정 소리에 귀 기울여볼 수도 있다. 그러다 경험적 전환이 필요하면 감각을 자극하는 색다른 행위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이 생기고 포착되려면 '사람이 사람을 긴 시간 천천히 만나야 한다'.

역시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이를 위한 연계 기관들의 '어려운 선택'을 마치 막으로 바라본다. 짧은 기간이지만 매개자로서 역할을 고민하게 된 예술교육가들과 참여자가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특히 지역에서 천천히 오래 만날 수 있도록 완주문화재단의 특정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별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을 연결하는 시도를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의지를 엮어낼 때 여러 현장이 함께 만들어내는 풍경처럼 보편성이 제도의 울타리도 벗어나며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멘토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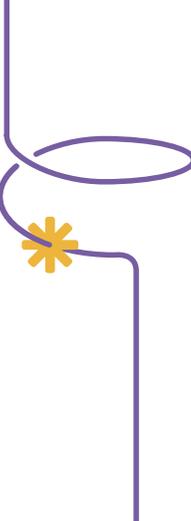
멘토링



멘토링



멘토링



사이 예술학교

☀ 함께 만든 사람들

참여 예술가 강나루 강지수 김정윤 소라엘 어코드(이현아, 정원)
장수진 조윤성 최민경 최은정 한용희

참여 기관 마음사랑병원 권은정 하나경
예수재활원 이승철
전북푸른학교 황지은 박지영
한사랑 김언경

멘 토 문해주 최선영

☀ 2025 장애예술교육지원사업 <사이:예술학교> 결과자료집

발행처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이사장 유희태

총괄 상임이사 정철우

기획·운영 문화예술사업국
이재정 장시형 김희윤

디자인·편집 브랜딩바바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연락처 063-262-3955

홈페이지 <https://www.wfac.or.kr>



사마 예술학교

완주문화재단 × 완주군